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문우

2023 | 가을호 | 68호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변혁의 펜을 높이 들자

편집장 나비 (경영 21)

편집위원 유연 (국문 22)
야부 (국문 21)
아자 (철학 22)
키마 (경영 21)
60 (문정 21)

수습편집위원 튜브 (중문 23)
토리 (문정 23)
어푸 (행정 18)
데어 (문정 21)

역은이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발행일 2023년 9월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지하 1층 문우방

디자인 이젠디엔피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유령(들)

씻 숨을 죽여야 해 피는 흐르지 않게 잇몸을 갈라도 빠는 흐르지 않게
 어설피게 마감된 손끝과 땀방울 눈매
 살과 살의 틈새에선 노란색 농담만 흘러야 해 냉소는 안 돼 찰랑이므로,
 찰랑이는 것(들)은 안 돼 이룰테면 쪽우 냄새 미끄럼 신호
 아주아주 깊은 못을 파는 거야 찰랑이는 것(들)을 위해

못 위에 집을 짓자 집 위에 나라를 짓자 나라 위에 세계를 짓자

꼭 눈을 감아야 해 돌다리는 두드려보고 건너고
 몸을 터는 유령이 올라온다 다리 밑에서 창밖에서 거울 속에서
 거울을 투과하는 것(들)을 삼키면 달이 나고 말지
 달이 나는 것(들)은 안 돼 이룰테면 철망 지푸라기 아스팔트 영수증
 실과 바늘을 드는 거야 달이 나는 것(들)을 위해

무덤 속엔 아마 없을 걸 극장 구석엔 있을지도 몰라 어찌면 공장 바닥엔

자 손을 잡아야 해 없는 것은 없는 것 그러나
 달이 나는 것(들)을 기워 넣고 박음질하면 어때 잠잠해졌지
 잠잠한 것(들)은 세계 아래에 나라 아래에 집 아래에
 약속해 누구도 맨땅을 도굴하지는 않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유령을 위해

이제 숨을 쉬자 이제 눈을 뜨자 이제 손을 풀자

유연

편집장 서문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음식을 먹어 본 적 있나요? 돈을 벌든 아니든 어떤 일이라도 해 보신 적은요? 아마 평생 이 두 질문에 모두 그래본 적이 없다고 답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문우의 이번 호는 아주 일상적입니다. 음식을 먹는 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될 비거니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누구든 겪어야 하는 노동. 그럼에도 이에 관련된 주제들은 너무나 ‘비일상적’이고 ‘괜한 말’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이번 호의 메인기획에서 문우의 편집위원들은 이런 ‘괜한 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문우의 눈’에 담긴 가족에 대한 고민, ‘오월정신’에 대한 의문, 장애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고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서 꽤 흔하게 접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간과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통함, 슬픔, 분노, 수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범람하고 있는 지금에도,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꾸준히 바라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온갖 넘치는 혐오와 비극에 2023년 1학기의 뉴스클리핑은 다들 주제가 너무 많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유독 답답한 마음속에서, 문우의 편집위원들은 무엇을 적고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학기에 진행한 세미나와 뉴스클리핑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글과, 이 글 모두를 가로지르는 권두시가 지면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큰 혁신과 아주 새로운 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면 받지 않도록 지지치 않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2023년 1학기는 연세대학교가 오랜만에 맞이하는,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1학기였습니다. 문우도 오랜만에 신입 부원들을 대면으로 맞게 되어 설레는 개강총회로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진 지금, 문우는 문우의 이야기가 탁상공론으로 남지 않기 위하여, 더욱 현장과 연결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빈곤연대활동 참여,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 사회과학 대학 자치도서관과 합동으로 주최한 <경계선> 좌담회, 버스타고 찾아가는 외국인보호소 폐지 문화제(이하 ‘버찾페’) 참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편집위원 아자와 키마가 버찾페의 활동 정리 글을 작성하여 “문우 활동 정리정돈”에 실었습니다. 버찾페에 참여한 편집위원들과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다녀온 편집위원들의 짧은 감상 및 현장의 사진도 담았습니다. 이 기록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들여다보며 문우가 더욱 많은 현장 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와 함께 서로의 안녕함을 확인하고 안녕하지 못함을 소리쳐야 할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회의 구석 구석을 찌르는 비명을 연습해 봅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함께 절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현실적인 한계로 더욱 풍부한 문우지를 내지 못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발간이 진행되어 여러분께 이 글을 보여드릴 수 있다니 기쁩니다. 독자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녕을 빌며,
편집장 나비 올림

CONTENTS

Main Theme 01 동물권/비거니즘

권두시	2
편집장 서문	4
Main Theme 01 동물권/비거니즘	7
나비_ 들어가는 글, 용어 정리	8
아자_ 문우 비거니즘 집담회	9
나비_ 대학 비건 주절주절	27
Main Theme 02 노동	33
튜브_ 지옥으로의 배달	34
토리_ 그늘에서 외치는 목소리	42
문우의 눈	50
야부_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51
어푸_ 내년 오월에도 광주에 간다면	62
데어_ 해체될 가족	77
정리정돈	88
아자, 키마_ 실천활동 - '버스타고 찾아가는 외국인보호소 폐지 문화제'	89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후기	96
유연, 60_ 문우 67호 독자모임	98
편집후기	120



들어가는 글

2023년 1학기 문우편집위원회는 동물권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문우편집위원들은 크게 “동물과 페미니즘 & 섹슈얼리티”, “동물과 장애”라는 두 차시로, “육식과 성 정치”, “짐을 끄는 짐승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의 일부를 읽고 발제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간인 우리에게, 동물권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상이자 생활양식이 바로 비거니즘이다. 이에 이번 문우의 여름호에서는 비거니즘을 주제로 집담회를 진행하였고, 편집위원 나비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짧은 글을 작성하였다.

용어 정리

본격적으로 집담회 내용을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비거니즘/ 비인간동물의 착취, 학대, 도살에 반대하고 비인간동물의 살 권리, 인간보다 ‘낮은’ 위치로 호출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비거니즘 실천은 크게 생활양식과 운동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비거니즘적 생활양식의 예시로는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 동물 실험을 하였거나 동물의 육체 일부를 활용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개인적인 실천 외에도 도살 전의 비인간동물들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비질(vigil) 등의 운동 또한 비거니즘의 연장선에 있다. 일반적으로 비거니즘이라는 용어는 행동의 동기(환경, 미용, 건강 등)를 특정하지 않고 통용되나, 이 기획에서는 해당 단어를 동물권에 기반한 정의로 사용하였다.

비건/ 비거니즘을 지지하고, 이에 기반한 생활양식에 따라 살아가는, 혹은 그러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 후술할 페스코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동물성 음식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플렉시테리언/ 비건을 지향하지만, 상황에 따라 동물성 음식도 섭취하는 사람.

페스코(페스코 베지테리언)/ 육류(소, 돼지, 닭 등)를 먹지 않는 사람.

폴로(폴로 베지테리언)/ 조류는 먹으나 이외 육류를 먹지 않는 사람.

에코페미니즘/ 페미니즘의 한 갈래이며, 그 안에서도 다양한 갈래가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생태학과 페미니즘을 결합한다.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생태학과 페미니즘 두 분야의 교차점을 살피고 여성의 시각에서 환경을 이야기한다. 에코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에코페미니스트라고 한다.



VEGAN

**문우 비거니즘
집담회**

참여자 60, 나비, 데어, 아자, 야부, 어푸, 유연
정리정돈 아자

1. 자기소개

나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를 맡은 나비고요. 고등학생 때 비거니즘 관련된 것들을 처음 찾아보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자 저는 고1 때 처음 비건을 접한 플렉시테리언 아자입니다. 고1 때 블로그를 했는데, 블로그 이웃이 에코페미니스트셨어요. 그분의 비건 실천을 보면서 저도 따라서 요리해 보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야부 저는 야부입니다. 비거니즘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민망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어 저는 데어입니다. 처음 비건을 안 건 고3과 대1, 그사이쯤 비건이던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저는 딱히 비건을 엄청 실천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굳이 횡수를 세어본다면 일주일에 1번 정도.

60 저는 60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건강과 환경 때문에 처음 관심을 갖고 풀로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이후 고등학교 때 페스코를 실천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연 저는 유연이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동물 실험 토론을 했는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을 읽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비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하고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급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이후로는 별생각 없이 살다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비건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죠. ‘그러면 나도 다시 해 봐야지’라는 생각에, 요즘에는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비건을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카페 다니는 걸 좋아해서 비건 카페 찾아다니기를 즐겨해요.

어푸 저는 어푸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옥자>를 과제로 봤었어요. 그때 감상문을 쓰면서 동물권에 대한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될 이유가 정말 많은 데도 살다 보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나를 되돌아보면서만 살다가 다시 학교에 다니니까 비거니즘에 도전이라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도칼(‘도토리칼국수’라는 이름의 비건 옵션이 가능한 식당) 정식도 먹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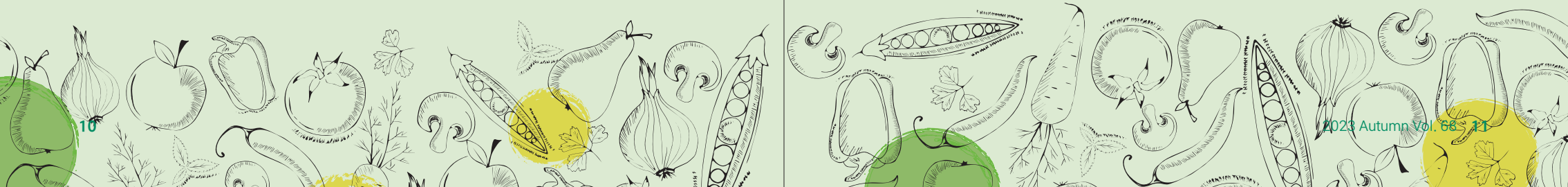
2. 비거니즘이 어려운 이유

유연 확실히 대학에서 (비거니즘을) 배우고 실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데어 그전에는 급식 먹으니까 (어렵죠).

나비 고등학생 때 비거니즘을 처음 접하고 트위터 같은 곳에서 깨작깨작 찾아보다가 ‘이거 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안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급식을 먹잖아요. 또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중식 석식을 다 먹는데 당연히 급식에 동물성 음식이 나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먹는 것이나 배부른 느낌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계다가) 굳이 영양소 균형을 맞출 필요도 못 느껴서 그냥 다 안 먹었죠. 그때 건강이 진짜 망했어요. 그렇게 실천을 해보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싶었어요).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먹을 때마다 동물성 음식이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교 와서도, 아직까지도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유연 어떤 제도나 무리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가정 내에 있을 때도요. 중학생 시절 일주일간 어떻게든 (비건을) 해 보려고 하던 때에, 가족들과 같이 수산시장에 갔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도 안 먹겠다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먹으면서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유연 요. 대학에 올라와서, 혹은 자취를 시작하면서 실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나 사회 안에 속하면 비건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진짜 매일매일 싸우고 싶지 않으면.

데어 맞아요. 저는 아직 본가에 사니까 부역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부역을 누가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말이죠. 반찬 투정하면 안 되잖아요?

야자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의 노고도 있으니까...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잘 먹을 것이란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를 배반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데어 비건을 실천하는 건 학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뭔가를 사 먹을 때인 것 같아요. 집에서 할 때는 아예 못 하고.

야자 사실 제가 비거니즘 자체에 대해 처음 접한 건 중학교 때였어요. 앞서 고1이라고 얘기했던 건 중학생 시절엔 오로지 다이어트를 위한 비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샐러드만 먹고.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반대도 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고1 때 학업적인 이유로 자퇴를 했거든요. 정규 과정에서 탈락되었다는 우울감으로 무기력증이 심하게 왔었는데 비건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건식을 요리하면서 성취감을 많이 얻었고, 그래서 가족들이 제가 비건 하는 걸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무엇보다 저희 가족은 어느 한 사람이 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유연 신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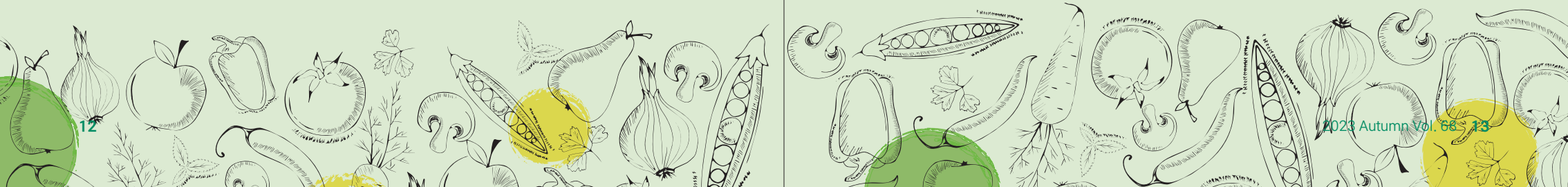
야자 부역에 있는 공책에 각자 돌아가면서 (원하는 식재료를) 적으면 그날 장 보는 사람이 장을 봐 오고, 각자 요리해서 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집에서 비건을 실천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아직 저는 본가에서 사는데도.

유연 가족 분위기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뭘 하든 무조건 다 같이, 뭘 하든 무조건 하나로’ 이렇게 생활하는 가족이다 보니까. 하나를 먹을 거면 무조건 같이 먹어야 하고 (그래서 비건 실천에) 어려움이 있어요.

야자 다른 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나요?

야부 저도 고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옥자>를 봤는데. 일정 기간만이라도 비건을 실천해 보자, 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긴 했죠. 그때 엄마랑 비거니즘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유럽에서 랍스터를 산 채로 요리하면 안 된다는 법안 있잖아요. 또 낙지나 문어 같은 생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능이 높고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특히 산낙지, 그런 게 굉장히 폭력적인 음식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사를 보고 엄마랑 “앞으로 계속 비건은 못 해도 그냥 산낙지만은 먹지 말자”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좀 크게 인식했던 경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생물을 산 채로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고 이걸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비 고등학교 때 토론 동아리여서 여러 고등학교가 모이는 토론 대회에 나갔었어요. 채식 관련된 책을 읽고 채식(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하는 거였죠. 저는 찬성 측에서 토론을 했는데, 반대 측이 “채식을 하면 영양소를 충족하지 못한다. 병에 걸린다. 스님들이 병에 걸리는 거 못 봤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심사가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심사위원 분들 중 한 분이 10년 정도 완전 비건식을 하며 사신 분이었던 거예요. 반대 측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 나는 10년째 그런 걸 안 먹고 있다. 그런데 난 너희가 말한 (것과 달리) 건강에 문제없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반대 측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물론 그 친구들이 반대 측을 맡아 억지로 그걸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비건 식단이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기존의 식단에서 무언가를 차감한 것이니 불안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직접 접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비건 음식인데 영양소도 (균형 잡혀) 있고 맛있고, 다른 논비건 음식과 다를 바가 없네. 이걸로도 먹고 살 수 있네'를 느끼게 하는 여러 경험밖에 없다고요.

데어 저는 비건이 아닌 친구들을 모른 척 비건 음식점에 데려갑니다. 어차피 음식점을 정할 때 아무도 확실하게 주장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호탕마라탕' 갈까?" 이렇게.

유연 저도 중학교 때 (만남) 친구들 '뉴욕 B&C' 데려가고 그랬어요.

데어 "애들이 여기 채수마라탕인데 깨끗하고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냥 맛집 데려가 듯이.

3. 안녕하세요, 비건입니다.

아자 저도 이 방법을 가끔 쓰는데, 모른 척 데려가서 여기 비건이라고 말하면 보통 생각보다 맛있다는 반응이에요. 비건에 대해 '신념을 위해서 맛을 포기한다'라는 식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숭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저는 거창한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데...

유연 유독 비건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육식 문화가 너무 보편적이어서 (비건 실천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고기 안 먹어'라고 하면 '왜 너만 착한 척해? 그러면 식물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데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에 되게 민감해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 고기 누린내가 역해서 못 먹는다고 하면 제법 잘 이해해 줘요. 근데 '나는 동물권에 관심이 많아서 육식을 안 한다' 혹은 '나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육식을 안 한다' 이라면 그 부분에 엄청 집요하게 달려드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유연 육식 문화에 대한 저항감을 드러내는 행위가 유독 더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게, '나는 환경 때문에 분리수거 열심히 해'라고 하면 '너 진짜 열심히 산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환경 생각해서 고기를 안 먹어'라고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유난 떠냐'라는 반응이잖아요. 똑같이 환경이라는 이유를 댄데도 불구하고 전자는 조금 더 이해받을 수 있는 영역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아자 육식 문화가 한국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잖아요. 좋은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고깃집에 가서 거하게 먹는단지, 아니면 지친 일상을 끝낸 가장이 치킨을 사 들고 온단지. 보상으로 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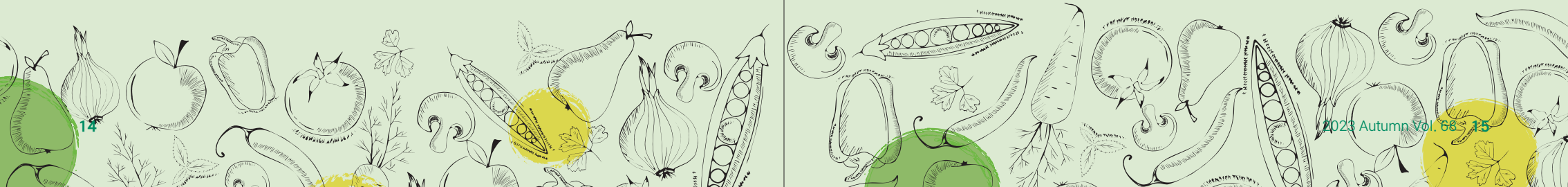
유연 육식 문화가 너무 지배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야부 분리수거나 에어컨 적정 온도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 안 하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기를 안 먹으면 규칙을 깨는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데어 (육식 문화가) 일상생활에 엄청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인간이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걸로 인식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못 먹는다고 얘기하면 '어떡해'라는 반응이, 안 먹는다 하면 '(이 좋은 걸) 왜?'라는 식의 반응이 오는 게 답답하죠.

유연 육식 중심적인 문화가 만연할 때 막막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매번 이해받을 수도 없는 거고.

아자 이해받고자 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60 저도 이해시키게 너무 피곤해서 (이제는) 그냥 설명하기를 포기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난 이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먹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다’라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어’라고 얼버무려요. 그러면 (다들 제가 먹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못 먹는 줄 알고 ‘불쌍하다. 그렇게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어떡해’ 이런 반응이 돌아와요. 거기에 굳이 말을 엮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경험이 많아요.

나비 저는 고기를 잘 소화하지 못해요. 몸에 안 받아요. 제가 ‘내가 이런 음식들이 몸에 안 받아서 못 먹어’라고 말하면 훨씬 이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 없이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말을 하자니 찝찝한 거예요. 제가 동물성 음식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고기가 몸에 안 받는다는 이유보다) 동물권 등의 다른 이유 때문인데요. 물론 당장 (동물성 음식을) 안 먹어서 얻는 효과도 있겠지만 ‘내가 비거니즘을 얘기하고 알리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내적 갈등이 생겨요. 그렇다고 계속 말하고 다니기에는 깡이 없고 힘들고 귀찮고.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갈등 일으키기도 싫고.

데어 어릴 때는 정말 비위가 약해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가족에게는 비거니즘을 설명하기 보다 “나 이거 이상해. 못 먹겠어, 구역질 나”라고 돌려대요.

유연 저는 (인간관계들) 자주 보고 또 오래 볼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요.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는 서로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평소에 슬쩍 채식주의의 글을 공유해서 제가 (직접 비거니즘을) 설명하지 않아도 개네가 그렇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요. (동시에 친구들은) 제가 비거니즘에 관심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이를테면 전에 친구랑 여행을 갔을 땐 “비건 식당 가볼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자주 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갈등을 만들지 않고.

아자 저도 친밀한 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이유로 비거니즘에 관심이 있고 왜 실천하려고 하는지를) 상세하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유연 저는 엄마 아빠한테 가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비건이 유행이야”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 사회가 시대가 변했구나”라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설명하기 귀찮은데 여기서 말을 안 엮는 건 좀 그럴 때, “요즘에 윤리적 이유 때문에 비건 하는 애들 되게 많아. 요즘 비건 유행이야”라고 말해요.

아자 또 저는 평소에 비건이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같은 얘기를 흘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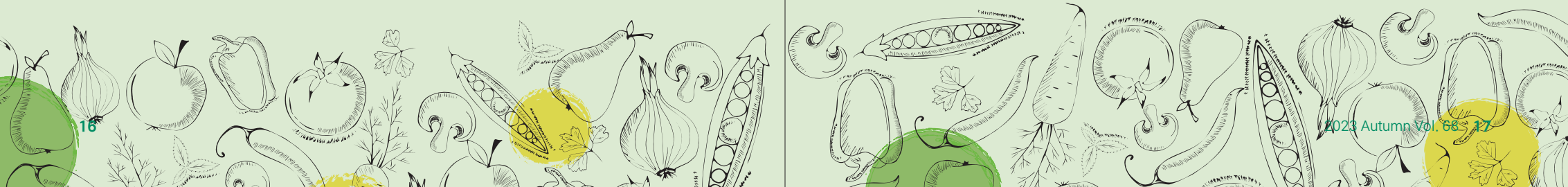
나비 비건은 사회성이 필요하군요. 근데 너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요즘 젊은 애들은~’ 화법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늙어가고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 밀려날 기성세대라는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게다가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본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새로운 세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또 실례가 되는 행동이요?

아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연 그럴 수도 있겠다.

나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엄마 아빠보다 학벌이 좋고 서울에 와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사실이고, (비거니즘 실천에 계층적 면모가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썩거리워요.

야부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유연 그런데 불교에는 살생하면 안 된다는 교리가 있어서 스님들도 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비건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면은 이상하거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뭘까요? 둘 다 똑같은 이유로 고기를 안 먹는데.

나비 아까 야부가 말했던 거랑 비슷한 이유 아닐까요? 규칙, 종교의 자유.

야부 스님은 '우리'라고 규정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수양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으니까...

데어 또 불교는 인간과 동물의 우열을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동물은 인간이 전생에 죄지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동물권을 생각해서 비건을 하는 사람들은 동물과 인간이 우열 관계에 있지 않고 동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이 유독 이해받지 못하는 지점이 아닐까.

유연 그럴 수도 있겠다.

데어 저희 엄마는 집 근처에 농장이 있었고, (동물을 죽이는) 잔인한 장면들을 저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생생하게 보셨겠죠. 그래서 엄마 같은 사람한테 잔혹함은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인간과 동물이 수직적인 관계라는 인식이 너무 지배적인데 불교는 그거에 태클 걸지 않잖아요.

나비 많은 비건들이 잔인한 도살장 영상 같은 걸 가져와서 '이 영상을 보면 비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먹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어가 얘기한 경우처럼 애초에 인간과 동물의 위치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잔인하고 불쌍하긴 한데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혹함이나 죽음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지점이지만 동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이 별 큰 차이 없다(는 거니까요). 그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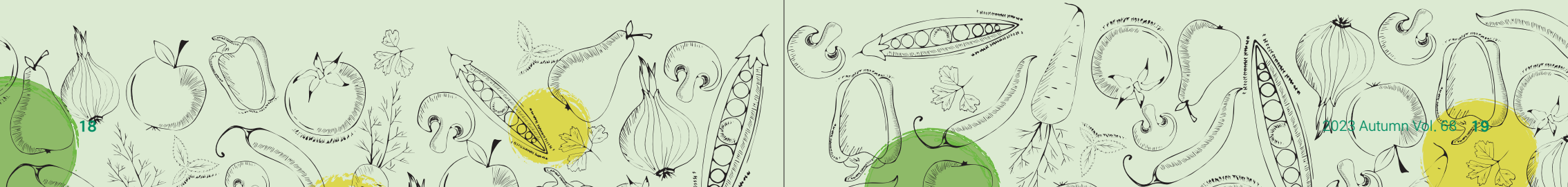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나눈 아주 많은 이야기처럼 굉장히 꺼내기 힘든 주제예요. 비거니즘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 인간의 잘못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비거니즘의 핵심적인 개념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연 그게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의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비건과 관련된 에세이를 읽었는데 '주변인들을 최대한 설득해 보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고깃집 말고 딴 데 가면 안 돼? 그래도 재밌을 수 있잖아"라는 말을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지?

4. 비건 유행?

나비 대학교에서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내리고 있는 무언가가 전혀 없었으니까, 새로 들어온 공동체에서 내가 그런 식으로 굴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건 관련해서 무언가를) 시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문우 같은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비거니즘에 대해) 아예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건 옵션이 있는 식당을 찾아본다거나 비건 카페에 간다가 나 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유연 주변인이 비건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될 필요성을 느끼죠. 이를테면 저 이대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대 앞에 이런 카페가 있는데 비건이래. 그래서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연락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지지받는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요즘 비건에 대한 모종의 적개심 같은 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건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비거니즘에 관심이 없어도 내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게 저한테 되게 소중한다고 느껴졌어요.



나비 맞아요.

어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비건) 공동체가 필요한 것도 맞는데. 비거니즘을 우리가 대부분 대학에 와서 경험하고 실천하게 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 어떤 사회적 계급을 누리면서 사느냐, 어떤 가족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정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비거니즘을 딱 제안했을 때 아예 다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해자로 지명당한 듯한, 놀란 리액션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는 않거든요. 육식이 당연한 세계에서 자라고 그제 어떤 위치에 이르지 않는 이상 (육식 문화가) 보편원리로 존재하는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목(당하면 놀랍죠). 우리가 채식하고 싶다고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떤 것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도 이 비거니즘이라는 운동이 가지는 계급성을 성찰하면서 실천하려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비 이 계급성을 정말 많이 느껴요. 일단 부산에 살다가 와서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이대 쪽에 보면 비건 식당 한 서너 개 있잖아요. 홍대 쪽에 비건 검색하면 (잔뜩) 나오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부산에서 비건 식당 찾으면 (검색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개발이 덜 된 동네에 살았어 가지고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비거니즘이라는 주제하에서 모든 인간들이 가해자인 건 맞지만 비거니즘을 좀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비거니즘이라는 걸 접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계급성이 아주 많은 작용을 했겠죠. 학벌이나 지역, 재력 같은 것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너도 잘못을 하고 있고 너도 비거니즘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까 어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오는 다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다른 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운동의 계급성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중략) 한편으로는 비

거니즘의 계급성에 관한 이야기가 고루하다고 얘기하는 비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비건이 듣는 반박 논리의) 주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비건 음식 너무 비싸서 돈 있는 애들만 비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혐오의 논리와 합쳐져서 쓰이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비건 옵션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비건을 실천하는, 혹은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당연히 (실천)하기 쉬워질 텐데, 이걸 너무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고, 너무 큰 단위의 변화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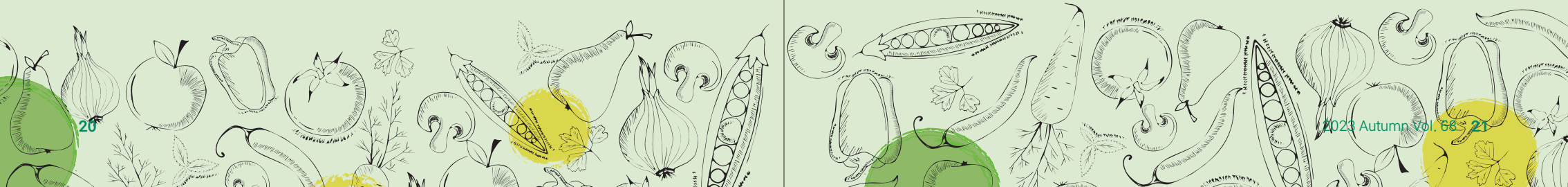
5. 비건 실천에서의 계급성

나비 아까 유연이 얘기했듯이 'MZ세대 비건 열풍' 같은 식으로, 최근에 비건이라는 이름을 단 상품이나 기획 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를 환영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유연 또 비건이 건강하고 친환경적이라고 마케팅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기농 마케팅하는 것처럼.

나비 그런 식으로 셀링이 되는 게 동물권을 주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면서도, '이렇게라도 비건 제품에 관해 접근성이 좋아지고 사회에 좀 더 알려진다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서 기분이 좀...

유연 비건은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정보적인 면에서 조금 더 장벽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기후 위기는 다들 공감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기도 하고.



나비 교육을 했으면 좋겠긴 한데 저는 교육만능주의도 싫어서 제안을 뚜렷하게 제시 못 하겠어요.

야자 요즘 학교에 채식의 날 있지 않나요?

데어 네, 있어요.

야자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는 들었지만 채식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비가 쓰는 글처럼 대학 식단을 비건으로 한다거나. 아까 우리 처음에 학교 급식 먹는 입장에서는 비건 실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고기가 너무 당연했던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때를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얘기를 했어요. 비건 하면은 샐러드가 너무 주된 것 같아서. 샐러드가 아닌 비건식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학교 비건식이 그렇게 대단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나비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비건식이라는 것은 논비건 식단에서 동물성을 뺀 게 아니라 동등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꾸려진, 그저 동물성 식품이 없는 식단이라고 설명하는 글을 봤거든요. 샐러드 먹는 비건을 지향하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충족해 왔던 영양소를 동물성 식품 없이 먹자는 거라고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자 개인적으로 비건 유행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별로인 점이나 한계도 분명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비건이 약간 유별난 취급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유행이 됨으로써 덜 유별나 보이고 왠지 쿨하다는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비건에 한번 도전해 보는 사람도 몇 명이나마 더 생길 거고.

야부 맞아요.

60 비거니즘이 운동적인 성격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잖아요. 최근에는 이미지가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비거니즘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기업에서 많은 상품을 내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요. 과거에는 비건을 운동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오히려 거부감도 극렬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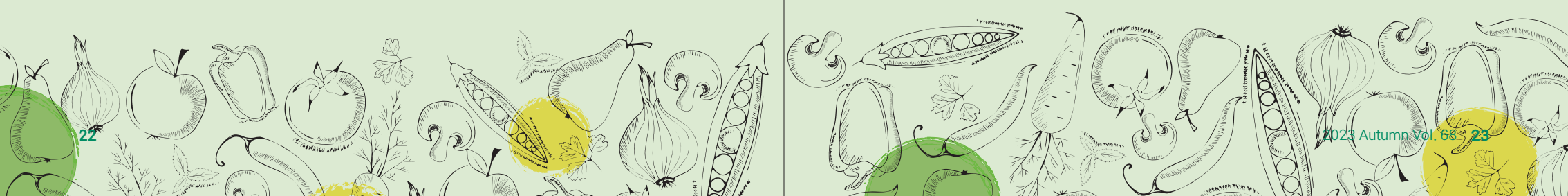
유연 근데 그러면서 비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그러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나비 그게 딜레마예요.

데어 오프라인으로는 확실히 거부감이 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샐러드가 아닌 비건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건식, 특히 대체육을 먹을 때 “너희도 결국 고기 맛이 그리웠던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있어요).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숭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고행하는 느낌으로 비건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내가 인정하겠다는 식의 인식이 좀 있지 않나.

야자 저는 다이어트 수단으로써 비건을 시작해 점점 공부하면서 다른 이유로 더 열심히 하게 된 사람이라, 비건이 유행하거나 소위 ‘패션 비건’이 생겨나는 게 마냥 안 좋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제가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단지 멋있어 보여서 (비건을) 시작한 사람도 ‘왜 해?’라는 질문을 받을 거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비건에 대해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비건에 대해서 더 공부하지 않을까, 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해요.

나비 저도 동물권을 이유로 비건 수행을 하는 게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 낙관적이에요. 비거니즘에 관해 찾아보다 보면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동물권을 이유로 행동하는 비건들이 보는 거나 그 사람들이 볼 거나 다 비슷할 거거든요. 게다가 인터넷이라는 게 타고 타고 흘러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



이 저 사람이고 서로 섞이는 것 같거든요. 온라인에서 접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식물성 식단을 찾아 먹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아자 같은 케이스가 꽤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위 반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가 그렇게 박하지 않았으면 하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든가 주류 사회와 맞지 않는 의견을 들었을 때 싸우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요. 사실 그렇게 되면 비건들 스트레스 받을 일도 훨씬 적을 것 같아요.

6. 마무리

나비 더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데어 어떻게 비건 실천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비 해시태그 ‘나의 비거니즘 일기’ 찾아보기, ‘연두’ 사기.

데어 저는 한 사람이 평생 완전 비건 (실천)하는 것보다 4인 가족이 일주일에 두 번 비건 (실천)하는 게 절대적인 육류 소비량을 줄이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희망으로 삼아요. ‘내가 친구들을 (비건 식당에) 끌고 가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 끼를 비건식으로 먹는 거니까, 내가 하루 종일 비건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겠네’라는 미약한 희망을 믿는 것 같아요.

나비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자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누가 ‘왜 문우는 단체 식사를 할 때 비건 식

당, 혹은 적어도 비건 옵션이 가능한 곳을 가려고 하는지’를 설명할 때 “어차피 탄 데서 단채로 밥 먹을 때 고기 많이 먹잖아요. 이럴 때 아니면 비건식 언제 먹어보셨어요”라고 말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유연 우리 봄 소풍 때였나?

아자 그랬나요? 아무튼 그 말이 인상 깊어서 가끔 사람들을 비건 식당에 끌고 가고 싶을 때 써먹어요.

데어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페미니스트로서 그런 생활 양식도 있다는 거를 수업에서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수업에서 회식을 한다면 자기는 비건 식당으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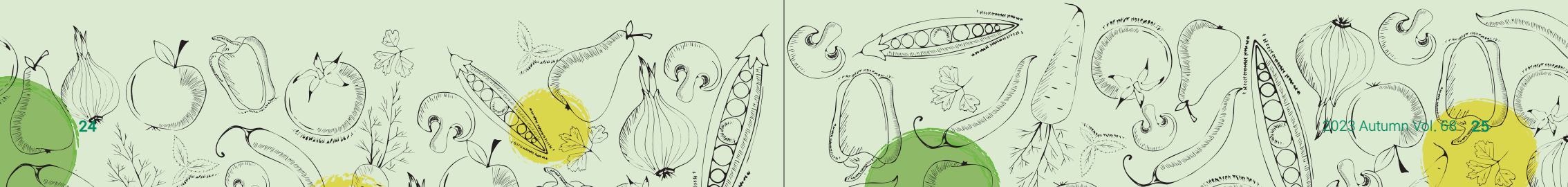
나비 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아자 요즘에는 비건 냉동식품도 꽤 많잖아요.

나비 요새 풀무원에서 비건 음식 많이 내더라고요. 저는 다 나쁘지 않았어요.

야부 요새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도시락을 많이 싸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메뉴를 통일해서 먹을 필요도 줄어들고, 내가 지향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따르기 위해서 비건식을 많이 내놓게 되는 것 같아요.

나비 개인적으로 저는 (비거니즘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관계에서가 아니라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유연 (비건을 실천하는 주변인의) 존재 자체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아자가 블로그 이웃이 비건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자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나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비건이랑 엮어서 얘기해 보기도 해요.

데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거니즘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을, 나와 그 사람 간의 친밀감으로 뚱개버릴 수 있을 것 같다면 좀 밀어붙여 보기도 하고.

아자 동아리 같은 데서 비건 소모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비건 맛집 탐방 소모임 이런 식으로 하면 친목과 엮어서 할 수 있잖아요. 혼자 비건 식당 가 보는 것보다 친구랑 만나는데 장소가 비건 식당인 게 심적으로 부담이 덜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비 죄책감을 가지되 탈진하지 않기. 마무리 멘트 어떻게 할까요?

유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비건들이여. 파이팅 하시길.

어푸 파이팅!



편집위원 / 나비

대학 비건 주절주절



대학생이 되면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지방 사람인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본가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니 논비건인 식품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식재료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사고, 요리도 똑딱 해내고, 냉장고 관리도 잘하는, 그런 환상 속에 그려질 법한 모습을 꿈꿨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었다. 집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다. 그래서 쪽글을 계기로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 지금의 대학이 가진 비거니즘적 문제점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대학이 비거니즘을 실천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까?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 지금의 대학이 가진 비거니즘적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야 할까?



대학교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접근성이다. 특히 식사를 할 때 그렇다. 대학에서는 보통 학식이나 주변 식당을 통해 끼니를 해결한다. 하지만 학식 혹은 대학가의 식당들에서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음식들도 모든 재료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는 보장이 없다. 애초에 비건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비거니즘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연세대학교가 위치하는 서울-신촌 부근의 식당가는 다른 지역보다 비건 음식을 찾아보기 쉬운 편이나, 그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

다른 하나는 사회 분위기이다. 이는 접근성과도 밀접한 문제이다.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이고 육식중심적이기에 가깝게는 다양한 인간관계 하나하나에서의 비거니즘 실천이 어렵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비거니즘 친화성이 낮아진다. 비거니즘 실천을 하는 경우 자신이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에게 밝혀야 한다는 점 때문에 친구와 식사를 한다거나, 회식 등 특정 공동체의 단체 식사 자리에 가는 일들이 꺼려진다. 약의 섞인 말을 들을까 봐, 공동체의 '단합'과 '분위기'를 깰까 봐 걱정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거니즘이 확산되기 어려워, 비거니즘적 실천이 계속해서 힘든 일로 남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물론 모두가 굳은 의지, 충분한 돈, 비거니즘 실천을 가로막는 장벽이 없는 환경 등을 가졌다면 접근성이나 사회 분위기에 구애받지 않고 비거니즘을 실천할 수 있었을 테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한정된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가 영위하고 있는 생활과 환경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실천 가능한 행동의 범위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에서 비거니즘의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학에서 바꾸어나갈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변화는 학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학식의 기본이 비건 음식이 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대학이 이런 시도를 하는 중이다.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도 '멸종반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 단체인 'Extinction Rebellion'의 활동으로 여러 대학에서 비건 학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학생 운동이 전개되었다. 켄트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들에서 비건 학식 옵션 제공 혹은 비건 학식을 기본으로 두는 안에 대한 학생 총투표가 이루어졌고 모두 찬성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¹⁾²⁾ 독일의 경우에도 베를린의 몇 대학이 2021년 10월부터 도시에 분포한 여러 구내식당에서 육류 메뉴가 아닌 식물성 메뉴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³⁾

이러한 전환은 보통 환경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학식을 바꾸었다. 동물성 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공장식 축산은 산림을 베개하고, 교통수단과 맞먹는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가축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에코페미니스트가 대부분 육류 소비를 지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해외

1) Nicole Axworthy, "Students Vote Meat Off Campus at University of Kent to Save Planet", VegNews, 2023.07.07., <https://vegnews.com/2023/7/kent-university-meat-off-campus>
 2) Nadeem Badshah, "Cambridge University students vote for completely vegan menus", The Guardian, 2023.02.21.,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3/feb/21/cambridge-university-students-vote-for-completely-vegan-menus>
 3) Phillip Oltermann, "Berlin's university canteens go almost meat-free as students prioritise climate", The Guardian, 2021.08.3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aug/31/berlins-university-canteens-go-almost-meat-free-as-students-prioritise-climate>

대학의 경우, 환경적 사유가 대두되기 이전에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할랄 음식(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등 채식 옵션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택지로서의 채식 학식조차 잘 시도되지 않는다. 당장 연세대학교만 보아도 외국인 교환학생이나 유학생이 대거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식당에서 할랄 인증과 관련된 표시나 안내를 찾아볼 수 없다.



지금 한국의 대학교들이 어떤 학식을 제공하는지 알아보자. 연세대학교의 경우 모든 캠퍼스에서 채식 식단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이 없다. 불교 재단이 운영하는 삼육대학교는 종교적 이유로 전면 비건 학식을 제공한다. 동국대학교는 2019년까지 육류를 사용하지 않은 학식 코너를 운영하였다.⁴⁾ 서울대학교는 채식 뷔페를 제공하는 감골식당을 운영한다.⁵⁾ 이외에도 중앙대학교에서는 2021년 2학기 동안 총학생회의 요구로 비건 학식을 도입하였으나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⁶⁾ 이렇듯 몇 군데의, 주로 수도권의 대학교에서만 비건 학식이 제공되고 있고 그마저도 일시적으로만 제공되어 이후에는 중단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전혀 이러한 제도가 없다.

많은 학교가 그랬듯, 환경적인 이유라든가 대형 기관에서 비건 음식을 기본으로 제공할 이유는 충분하다. 다른 대학은 몰라도,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은 연세대학교 같은 대학들부터라도 그런 결단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환경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에서의 채식 기반 학식 제공은, 내가 꿈꾸는 ‘그저 동물이 죽기 때문에’ 채식을 하게 되는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식이 바뀐다면 대학 구성원들은 비건 식사에 익숙해질 것이고, 이런 식사에 영양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며, 비거니즘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식의 변화를 위해 동물권에 입각한 사유 및 입각하지 않은 사유 모두로 대학에 연루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건의하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목소리의 바탕이 될 비건들의 공동체도 필요

4) 강유리, 나민서, “비건인데 학식 먹을 수 있나요? 채식 학식 도입 어려운 이유는”, 이대학보, 2022.09.15.,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0331>
 5) 김서은, “채식 학식이 당연한 권리의 보장이 되려면”, 서울대저널, 2022.05.19., <http://www.snujn.com/news/56079>
 6) 김주연, “대학 내 비건, 존중받고 있나”, 중대신문, 2023.05.08.,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024>

하다고 생각한다. 비거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남의 장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다.



사실 비거니즘으로의 전환은, 아예 새로운 생활 양식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비거니즘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혹은 적대적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끝까지 않는 고민의 주체다. 또한 지금의 비거니즘은 당연히 각자 더 실천하기 쉬운 위치의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더욱 비거니즘적 생활 양식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에 비거니즘에 연관된 경험의 확산이 중요하다. 비거니즘에 연관된 경험의 확산은 비거니즘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비거니즘이 사회의 보편적인 사상이 된다면, 많은 기관의 식사 및 식문화가 비건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고, 비건 상품의 종류와 개수가 현재 논비건 상품의 종류와 개수만큼 많아져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물론 이런 간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왜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내고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이 큰 동시에 값싼 제품을 판매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선택되는 여러 프랜차이즈 대기업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활발히 고민하고 출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의 사업이나 권고, 정책이 필요하다.



언젠가 비인간동물들의 말을 인간의 말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의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가 등장한다면 모든 인간은 동물들의 말에 미처버리고 모든 동물은 서로 규합하여 인간을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친구들과 한 적이 있다. 너무 비판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

는 꽤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비인간동물에 대하여 철저한 억압을 자행하는 명백한 가해자이다. 그래서 비거니즘이 필요하다. 단순히, 동물이 너무나도 뿌리 깊고 심각한 학살과 폭력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해왔기 때문이다. 이기적으로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비거니즘은 가치가 있다. 비거니즘은 완전한 타자가 겪는, 자신은 평생 겪을 일이 없는 고통에 대해서 연대하고 생각하게 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이 보편화되면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타자와의 연대가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세상도 훨씬 살 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공동체에서의 고민과 변화가 중요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거쳐 간다. 그 말인즉슨 많은 사람에게 대학에서 ‘식사’의 순간이 꼭 찾아온다는 것이다. 식사는 비거니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적인 주제다. 그래서 대학에서부터 학식과 단체 식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꽤 많은 사람이 바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큰 사회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에서 동물성이 아닌 식단으로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던 경험과,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점차 비거니즘이 전체 사회에서 정말 ‘유효한’ 사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Main Theme 02 노동

수습편집위원 튜브

지옥으로의 배달

배달앱 이용자 수는 3천만 명이 넘어가고 ‘새벽배송’, ‘로켓배송’ 등 다양한 택배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 우리는 ‘배달’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데택배’, ‘CJ 대한통운’, ‘우체국 택배’ 등을 포함한 기존 물류 배달 택배 서비스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마켓컬리’ 등의 요식업 배달 서비스와 ‘GS25 편의점 택배’, ‘CU 편의점 택배’와 같은 편의점 택배의 등장이 더해져 배달 서비스 산업의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삶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마냥 편리하게만 보이는 배달 서비스의 이면엔 모두가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배민 라이더 파업’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택배노조가 참여해 2주간 지속된 ‘민주노총 총파업’ 등, 지속적인 배달·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파업해야만 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우선 노동 시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기사, 음식 배달원 등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에 따라 운송 관련 단순 노무원 중 배달원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택배기사와 같이 트럭 등의 배달 차량에서 물품을 운반하는 직업군을 택배원, 배민 라이더와 같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통해 물품을 운반하는 직업군을 퀵 서비스 배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으로 분류되는데 특고직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란 고정적이고 명확한 하나의 조직에 속해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로 인식되고 정의됩니다. 하지만 특고직은 조직에 속하지 않은 하나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임금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¹⁾ 이 특성 때문에 특고직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각종 기준으로부터 이탈하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특고직 배달원들은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로부터 밀려난 채 여러 차별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4대 보험 적용 차별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배달원은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도입 이후에도 대상에 포함된 직종은 택배기사뿐이었고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퀵 서비스 배달원도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달원은 특고직이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는 때에만, 사업주와 반씩 부담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

1) 김철식 외,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오월의봄, 2021, 33.

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달원도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사업주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배달원은 특고직인 동시에 ‘필수업무종사자’로도 분류됩니다. 필수업무종사자란 ‘돌봄서비스·운송서비스·보건의료·환경미화’ 네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부르는 말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직업군을 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필수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환기되면서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해 필수업무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배달원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배달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업군으로서 필수성을 인정받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다르다고 규정되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배달원들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기본적인 노동 환경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초 대대적인 택배연대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택배 배송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총파업의 배경에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찾아온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10% 안팎으로 늘어나던 택배 물류량이 코로나 시작 이후 21%나 증가하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01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급격히 많아진 택배 물류량은 기존 택배기사들이 전부 감당해야 했습니다.²⁾ 택배기사들은 심야 배송까지 강행해 가며 주 60~70시간에 달하는 고강도의 노동을 통해 이 모든 물량을 소화하였습니다. 게다가 배달 업무뿐 아니라 분류 작업까지 택배기사들이 맡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체적인 피로도와 고통 또한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신체·정신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우체국 택배,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등 여러 택배사의 노동자 총 22명이 자살 또는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동료들의 죽음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전국 택배 운송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파업으로 뜻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택배 운송 노동자들이 당시 파업을 통해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할 것 ▲분류 작업은 택배기

사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 작업 전담 인력과 비용을 부담할 것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 이외에도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와 진보당 부산시당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부산이행점검단은 CJ, 한진, 롯데 등에 고용된 150명의 택배 운송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82.7%의 노동자가 찬성한 주5일제 근무와 91.3%가 찬성한 택배 요금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³⁾ 당시 택배 운송 노동자들이 요구한 사항은 노동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총파업의 결과로 21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분류 전담 인력 투입’, ‘심야 배송 제한’ 등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7월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도입되어 실질적이고 법적인 근로 환경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성공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023년 7월에 있었던 민주노총 총파업에 임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 노동조합 헌선범 정책국장은 21년 사회적 합의 이후의 택배 운송 노동자의 삶에 대해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겨 주 55~6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분류 전담 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은 전체 30%일 뿐 완벽하지 않다. 주5일제도 시범 사업에 그쳤고 문제는 여전히 많다”라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⁴⁾ 과로사 수치가 줄어드는 등 분명한 개선은 있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해결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배 운송 노동자 외에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운송 서비스 종사자 직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민 라이더’를 비롯한 쿡 서비스 배달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것은 택배 물류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운신 폭이 좁아지면서, 개별 음식점 전단지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배달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쿡 서비스 배달원이 겪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0년 10월, 오마이뉴스에서는 10대~50대 배달 라이더 5명의 이야기를 담은 라이더유니온 인터뷰 기획 ‘나는 배달노동자다’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여러 법안이 제정되고 개정되었기에 2020년 배달노동자들의 경험과 지금의 처우는 다를 수 있지만, 가장

2) 김혜림, “[숫자로 돌아보는 세상만사] 65 ...택배기사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 매일산업뉴스, 2021.05.05., <https://www.imsn.kr/news/articleView.html?idxno=5871>

3) 차근호, "택배 노동자 82.7% 주 5일제 찬성, 요금 현실화 91.3% 찬성" 연합뉴스, 2021.05.26.,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6111000051>

4) 성상민, "'사회적 합의' 그 이후... 택배노조가 여전히 싸우는 이유" 오마이뉴스, 2023.07.1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423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큰 음식 배달 대형 플랫폼인 배민의 라이더들이 배민을 상대로 파업 투쟁을 벌여 온 것은 2023년 5월까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특집 기사를 통해 라이더 노동 환경의 구체적인 실상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기사에는 배달을 가던 도중 택시와 충돌하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10대 라이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산재 보험 적용이 확대되기 전인 2020년 당시 산재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때에 따라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임을 증명했을 때뿐이었으며, 그마저도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⁵⁾ 애초에 신호 위반 같은 중과실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교통법규를 전부 지키며 배달을 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50분 소요’와 같은 배달 도착 예정 시간이 알림창에 뜹니다. 이러한 요구를 맞추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음식을 배달하게 되면 늦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거나 심할 경우에는 라이더에게 음식값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라이더는 폭언을 하는 고객을 응대하면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거니와, 음식값을 물어주는 경우 해당 업무를 통해 번 배달팁을 넘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라이더들이 충분한 동선 계산 끝에 배달 시간에 늦지 않는 선에서 주문을 선택하고 처리해 움직인다 해도 도로 위에선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예외 상황,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을 지키기 위해 라이더는 어쩔 수 없이 과속 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률은 더 올라갑니다.

라이더는 특고적인 동시에 필수노동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는 택배기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라이더 업무가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라이더는 플랫폼 노동자에도 속하게 됩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택배 회사가 명백한 사용자가 되지만 플랫폼 노동자인 라이더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거래합니다. 플랫폼 노동에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외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이 필수가 아니고 사용자가 모호한 탓에 플랫폼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등 실상 실효성 없는 계약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기란 더욱 어렵습니다.⁶⁾ 라이더가 배민과 계약을 체결하고 배민 라이더라는 노동자로 일을 한다고 해도 배민이라는 ‘회사’는

노동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배민에서 노동자에게 ‘산재포기’ 조항을 담은 부당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에도 배민은 모든 책임이 하청업체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⁷⁾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직군에 종사하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도 택배기사와 똑같이 배달 건당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한 30대 라이더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배민의 경우 기본 배달료 3천 원에 그날그날 프로모션에 따라 배달료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점 주문을 처리한다고 해도 예제는 프로모션으로 건당 5~6천 원을 받고 오늘은 3천 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 날마다 기본적으로 수입 변동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프로모션의 유무나 하루에 소화하는 물량에 따라 임금이 널뛰기 때문에 배민이 라이더 구인 공고를 낼 때 ‘월 600’ 등으로 광고하는 내용은 결국 운이 좋아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려야 손에 쥌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민은 주문 콜을 받을 수 있는 앱을 1분이라도 늦게 켜는 경우 벌금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초반에 무료로 지급해 줬던 오토바이의 모델을 추후 싸구려 오토바이로 바꾸어 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만들고 오토바이 렌트비까지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갑질’을 해 왔습니다.⁸⁾

라이더들도 라이더만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을 조직하고 여러 차례 파업 투쟁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유의미한 합의에 도달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23년 5월 배민라이더스의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이 배달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 가능한 배달업을 위한 상생 지원제도 운영을 약속하긴 했지만 이를 통해 배달 노동 환경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택배 운송 노동자와 쿡 서비스 배달원(일명 라이더), 다른 듯 비슷한 두 사례를 통해 운송 서비스 종사자들이 처한 노동 환경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배달 건당 측정되는 임금으로 인한 긴 노동시간과 과로,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다 보니 생기는 사고 위험성, 앞서 다루진 않았지만 매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물건을 운반하면서 생기는 허리/목의 통증으로 인한 건강상의

5) 홍세미, “배달라이더가 사고 나면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 오마이뉴스, 2020.10.0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1385&SRS_CD=0000012928
6) 김한나, “배달노동자 표준계약서 '유명무실'... '만능키' 된 '약관동의'” 쿠키뉴스, 2023.06.01.,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310204>

7) 김유라, “배민 B마트 직원에 ‘산재포기’ 강요에도... 배민 “회사 책임 아니다” 발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21.10.21.,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79>
8) 박희정, “들쭉날쭉 수수료... ‘배민 장난질에 놀아났다 심조’” 오마이뉴스, 2020.10.1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579&SRS_CD=0000012928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운송 노동자가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은 운송 관련업의 임금이 전부 건당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택배 요금이나 배달 수수료 인상이 곧바로 운송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1년 택배 총파업 당시 CJ 대한통운이 택배 요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했지만 이로 인한 추가적 이윤을 노동자와 나누지 않아 택배기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인상 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택배 요금/배달 수수료 인상 시 발생하는 추가 이윤이 반드시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요금이나 수수료 인상 시 일정 비율 이상 무조건 노동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시급제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과로의 주된 원인은 건당 보수를 지급하는 임금 지급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제가 도입된다면 무리해서 하루에 많은 양을 배달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하루에 적절한 최소·최대 배달량을 정해야 합니다.

운송 노동자는 평균 주 60시간 동안 매연이 가득한 도로 위를 달려 수많은 물건을 들고 건물을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게다가 배달은 대면 서비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각 지속적인 매연 노출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허리/목의 통증,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택배사/배달대행업체는 노동자들이 쉬는 날 주기적으로 혹은 건강 검진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무료로 종합적인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례로, 쿠팡은 택배 노동자들의 주기적인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한 유급 건강케어 시스템인 '쿠팡케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도는 노동자의 급여에 기댄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통해 '운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의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노동자의 건강 보장은 개인 내지는 사업주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송 노동자는 도로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매년 약 20만 건, 하루에 약 5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도로는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런 도로를 매일 달려야 하는 운송 노동자는 산재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방이 뚫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해야 하는 퀵 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보호 장비를 착용하더라도 사고 시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이후 배달 물류량이

전체적으로 급증하면서 2019년 106건이었던 택배기사의 산재 승인 건수도 2021년 41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⁹⁾ 물류량이 늘어날수록 산재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재에 취약한 운송 노동자는 지난 7월 '산재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고직의 산재보험료 절반 납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법원이 "특고직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 근로자보다 사업주와 유사한 면이 있다"¹⁰⁾라고 판단해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명시한바, 특고직 전체의 산재보험료 납부 방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한다면, 운송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 주체인 사용자 또한 명확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택배 물류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민을 비롯한 요식업 배달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점점 다양해지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달 서비스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고 배달은 더 이상 우리 삶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누구나 될 수 있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배달'이라는 노동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노동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으로 조금 느리더라도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택배 파업으로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배달 수수료 인상에 찬성하는 것 등 작은 태도의 변화로 운송 노동자와 연대할 수 있습니다. 태도의 변화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로 이어지고 노동 환경 변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에서 출발한 새로운 시작은 결국 기존 법·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법·제도의 수립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운송 노동자가 더는 불합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함께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9) 신원, "코로나19 이후 택배노동자 산재 4배 늘었다" 매일노동뉴스, 2022.09.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77>
 10) 채민석, "법원, '특고직' 배달기사 산재보험료 절반 납부에 '차별 아니다'" 조선일보, 2022.07.11.,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7/11/QOTWFX5KWFHBN0OVNIETFXBZ7E/

그들에서 외치는 목소리

수습편집위원
토리



작년 9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등본 2매를 출력하러 갔습니다. 기계 결함으로 인해 직원이 등본을 직접 출력해 주시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등본 2매를 출력하러 들어가신 직원이 2~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셨고 다른 창구에 계신 공무원분께 여쭙보니 '그분은 원래 느리다'는 답변을 하시며 직원의 성함을 크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지지 않은 100매가 넘는 등본을 들고 곤란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오고 나서도 저한테 죄송하다고만 하시는 모습에 결국 창구에 계시던 공무원분이 바로 제 등본을 뽑아다 주셨고, 당황하긴 했지만 괜찮다고 말하며 행정복지센터를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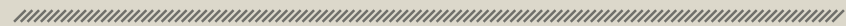
당시엔 당황한 마음이 커서 제대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로부터 그 직원이 복지센터에 고용된 장애인이며, 실수가 잦아 민원이 많다는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잘하고 싶어 하던 그분에 대한 단순한 동정의 마음도 있었지만, 동정뿐 아니라 장애인 노동의 현실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과연 그 일이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노동이었을까, 일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은 받을 수 있었을까, 느린 습득력을 민원인들이 이해하도록 행정복지센터 측에서 설명을 덧붙여 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장애인의 노동과는 다를 수 있는 장애인의 노동 형태가 과연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가, 장애인들은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노동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된 글을 써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력을 들이는 행위 자체를 노동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의 의미는 더 넓고 포괄적입니다. 우리는 주로 노동을 생각할 때, 노력과 능력을 기반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토대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로 창출해 내는 사회적 가치 또한 노동의 본 목적만큼이나 중요시합니다. 또는 그 완성된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 자체를 노동의 본질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동이라는 행위를 중요시하고 삶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노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 때문일 것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보상을 받고, 이 보상을 위해 생산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이처럼 노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기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동 의욕이 떨어질뿐더러 생계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태업이나 파업과 같이 교섭을 시도하는 것 모두 그러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선택하기조차 어려운, 노동 시장에서 약자의 자리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고안된 노동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만들어진 노동권이라는 개념이 실상 모든 사람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자’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장애인 노동자’란, 장애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노동을 위한 특별한 유형의 작업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노동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거나 노동 장소로의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과 고용 시장에서의 차별과 편견으로 고용 기회에서의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들 모두를 장애인 노동자로 상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사회에서 노동은 행위 자체보다는 노동 행위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와 보상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주로 성과와 생산량처럼 정량화된 지표에 의해서 정해지곤 합니다. 단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보단, 물건이 팔리고 수익을 낸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받는 보상이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금의 사회에서 말하는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은 노동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행위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 제7조에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7조)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행법상, 사업주는 작업능력과 생산능력이 70%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70% 미만의

생산, 작업능력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지표나 수치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작업능력평가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70%라는 기준이 새로 도입된 2019년부터 일부러 작업능력평가의 점수를 떨어뜨리고 평가에 불리하도록 평가 과정에서 낮은 업무를 주는 등의 개입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법은 결국 1만 명이 가까운 장애인들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평균 월 37만 원의 수익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애초에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경증장애인보단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1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은,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단 일자리를 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낫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취지는 장애인 노동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임금’으로 상정하고 있어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이 법은 입법되자마자 장애인 노동자들을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고 착취하는 용도로 악용되었습니다. 결국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주장했듯,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정상적’ 노동을 하도록 훈련받으며 낮은 임금을 견뎌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무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 그들의 노동 효율성도 높이고 임금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의 대가가 노동자가 삶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만큼, 임금과 관련된 법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조금의 허점도 보이면 안 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법 속 조항을 철폐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는 입법 목적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동법 제3조제1항)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동법 제5조제1항) 그러나 이 법이 2%의 고용할당제를 신설하긴 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내는 벌금이 더 이득인 상황이 발생해,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이 법이 잘 지켜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최저임금법의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장애인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생산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고용 및 임금 기준을 적용하기보단 성과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사회의 제도와 분위기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장애인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처럼 장애인의 노동과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꾸준히 제기되는 국가들 중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제외한 국가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그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상당 지원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시에 그들의 노동 능력에 따라 최대 3년까지만 최저임금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이 우리나라의 약 2~3배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을 철폐하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처럼 한국에도 장애인 중심의 법이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장애인 노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할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최중증장애인들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 가능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생계유지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는 1,200여 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자와의 계약이 1년마다 갱신되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매년 계약이 종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023년 3월경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지원받은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모인 연합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지속적인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제도의 허점을 짚으며 정부 측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약 1년간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이기에, 곧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사무국장과 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법

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실태는 어떨까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위해 노동권을 주장하고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활동에는 부정적인 시선 또한 쏟아져, 과연 우리 사회가 그들이 노동권을 포함한 권리 주장을 위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전장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목표로 지하철역에서 시작한 시위입니다. 그러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시위의 본 목적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비난의 목소리만 커질 때가 잦았습니다. 정치권 인물들이 시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면서, 장애인 혐오 여론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오 여론을 등에 업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불법시위로 인한 손실금, 질서유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들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다가 이후엔 21년 말~22년도 시위 건에 대한 손해배상 6억과 23년 1~3월의 손해배상 건 1억 2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후 전장연은 다음 시위부터 5분 내로 탑승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측에 무시당했고 박경석 대표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30시간 이상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위를 통해 요구한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화는커녕 장애인 이동권 부문의 정부 예산이 삭감되지만 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시위를 보장해 주지조차 않고, 목소리를 내도 정부가 나서서 묵살하고 왜곡하는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의 매년 4~5월경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엽니다. 2022년엔 장애인노동절을 5월 1일로 지정하고, 서울 일대에 300여 명이 모여 행진하고 민주노총과 시위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부에 주장했던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제도화’, ‘의무고용제도 전면 개혁’은 1년 이상이 지난 아직까지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2020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최저임금법 7조 삭제 건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특별법’ 또한 발의된 지 4달이 되어가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시위할 땐 시민들의 관심이 생기기도 하나 그마저도 왜곡된 목소리

들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이어지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은 생기지 않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의 정량적 기준이라 여겨지는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 허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는 제도들을 바꿔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법안을 비롯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빛을 발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글에 쓰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정말 장애인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2% 고용할당제를 신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15년 이상 장애인의무 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 기회 확대를 위해 신설한 법안이 왜 몇 년째 시위의 주원인이 되는지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장애인 노동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을 위해 필요한 이동과 교육 등 역시 외면받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단지 제도를 만든다고 그들의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는 사회의 모습을 바랍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마땅히 비장애인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만들어 빈곤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더 철저하고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많은 제도와 법안이 근 몇십 년 사이 여러 개 신설되었지만 기대한 효력보다 더 못 미치는 성과를 내었고, 사실상 우리 정부는 그들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입법해 두고 관심 가지지 않을 법안이 아닌 법이 적용될 당사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하루빨리 장애인 노동자들이 더 편하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노동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참고문헌

김동주. 「장애인노동통합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찰」. 『신학과 사회』. 28권, 3호, 2014, 67-84.

하경희.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1권, 2호, 2023, 53-81.

조성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노동·사회보험법적 보호와 개선방안 - 중증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42호, 2020, 307-353.

임예직, 문영민.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1권, 3호, 2020, 147-176.

임혜진. “중증장애인 ‘권리 생산’하는 공공일자리, 노동부가 주도해야.” 참여와혁신, 2023.04.17.,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권리 투쟁에 연대해주시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3.07.14., <https://sadd.or.kr/news/?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15611107&t=board>.

이재. “[이동권 차별뿐이라] “장애인 최저임금 못 줘” 기본권 침해하는 최저임금법.” 매일노동뉴스, 2022.03.3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16>

백민.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장애인 노동자의 외침.” 에이블뉴스, 2023.03.2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73>

박지영. “장애인 노동자들 거리에서 9천여명 장애인 5년째 37만원 월급.” 한겨레, 2022.05.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118.html

남윤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언제까지 유지하나.” 매일노동뉴스, 2023.04.12.,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92>

문우의 눈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면¹⁾

편집위원 아부

최근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는 전작에 이어 수많은 멀티버스에서 온 스파이더맨들이 등장한다. 기존의 도식화된 스파이더맨을 벗어난 다채로운 모습의 스파이더맨들 가운데 휠체어를 탄 스파이더맨이 눈에 띈다. 전통적으로 슈퍼히어로물에서 장애는 빌런의 것이었다. 각종 미디어에서 빌런의 장애는 악당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그려진다. 그들은 어딘가 ‘비정상’으로 인식되는 몸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는 그들의 태생적인 결핍, 그리고 이로 인해 뒤틀리고 비뚤어진 마음을 설명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커트 코너스 박사는 오른팔이 없는 장애인으로 새로운 팔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혈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본인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다.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켜 그는 폭력적인 인격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흉측한’ 도마뱀의 외형을 가지게 된다. 심지어 그는 장애를 ‘고치겠다’라는 목적으로 혈청을 분사해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과 비슷한 커다란 도마뱀의 몸으로 만든다.

1)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181.

반면 비장애인 백인 남성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슈퍼히어로에게 장애는 운이 나빠 일어난 일시적인 시련 중 하나일 뿐, 그들은 금세 장애를 ‘뒀고 일어서는’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 사실 이들은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도 영화 안팎에서 장애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인물들은 결국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혹은 그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이들에게는 장애인으로서 자기의식이나 정체성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윈터 솔저는 왼쪽 팔이 절단되어 강철 팔을 장착하고 있지만 관객들은 그를 장애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를 장애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일종의 모욕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그의 팔은 장애인이라는 말이 연상하는 ‘무능하고 의존적인’ 유형의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진 그만의 독보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장애를 ‘극복’한 ‘슈퍼휴먼’으로서의 장애인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사이보그 장애인’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이 ‘사이보그 장애인’은 인공 보철을 장착한 채 인간 본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만능의 모습을 보인다. 조금의 흠도 없이 매끄러운 몸을 가진 이들은 앞으로 등장할 신인류로 호명되기도 한다. 이들은 보조 공학 기기와 결합한 몸이라 해도, 어떤 몸은 대중이 열광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장애인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뛰어난 생산력을 증명해 내는 이러한 몸들을 환영하고, 신기해한다.

그러나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서는 ‘슈퍼휴먼 장애인’에 비해 평범하다면 평범할, 휠체어를 탄 스파이더맨이 잠깐이지만 그 모습을 비춘다. 누군가는 휠체어를 탄 슈퍼히어로라는 설정이 너무 억지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슈퍼히어로가 장애인이라면 아이언맨처럼 슈트를 입어서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다. 이러한 말에서는 휠체어는 어딘가 미비하고 불완전한 상태이며 (슈트와 같은) ‘정상’ 신체를 재현하거나 뛰어넘는 보철물은 그에 비해서는 발전된 단계라는 생각이 드러난다. 이때 장애의 유형에 따라 의족과 같은 보조 공학 기기보다 휠체어가 몸에 더 편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보조 공학 기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은 간과된다. 두 다리로 걸어나는 것이 ‘정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에 가까운 형태일수록 ‘완전’하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미디어 속 장애를 지닌 등장인물이 휠체어를 탄 경우에 대중들의 저항감이 더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상적인 ‘보통’의 몸을 가지지 않은 존재 자체를 깔고러워하는 것은 물론, 이 낯선 몸이 ‘보통’의 몸과 다름없이 기능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슈퍼히어로와 별런의 상반된 장애 재현, 그리고 비장애인이 반기거나 그렇지 않은 슈퍼히어

로의 장애 재현은 장애와 기술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질까? 장애인은 이미 보청기, 점자정보단말기, 휠체어 등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보조 공학 기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몸은 보조 공학 기기와 결합하더라도 사회적 정상성 안에 포함될 수 없다. 이상적인 몸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압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눈에 띄는 보조 공학 기기는 장애인의 몸이 ‘알맞게’ 통제되고 규정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이런 면에서 장애인은 기술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를 지닌 몸에 대한 논의는 늘 기술의 영역을 거쳐 간다. 여기에서 장애와 기술의 결합은 스티븐 호킹과 같이, 기술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이겨내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천재 장애인의 이미지로 상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는 언제나 극복의 대상이며, 과학·의료 기술은 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앞서 이야기한 미디어 속, 인간 이상의 능력을 펼치는 ‘사이보그 장애인’으로 확장된다. 비장애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장애를 지녔지만 ‘유능하고 무해한’ 몸 앞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한 의존이 없어서는 안 되는 몸들은 지워진다. 결론적으로 어떤 기술은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또 다른 기술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규칙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장애인에게 강요되는 것이다. 이 두 상반된 목적의 기술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장애와 기술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국제 손상·장애·핸디캡 분류는 장애를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만큼의 이상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그 사람은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이 정의를 장애 관련 법률의 준거로 삼았다.²⁾ 장애인을 불능이라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원인이 일정한 손상이라는 것은 매우 친숙한 도식이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두 팔을 사용할 수 없다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손상을 장애로 만드는 그 연결고리에는 사회가 존재한다. 장애인에게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가, 다른 사회라면 손상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손상이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2)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60.

손상을 가진 몸을 ‘정상적인’ 몸으로 ‘돌려놓는’ 것이 장애 문제의 첫 번째 해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아래의 사례들에서 장애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을 엿볼 수 있다.

2023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나쁜 엄마>에서 주인공 강호는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마비된다. 그의 엄마 영순은 한순간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아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감행한다.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강호에게서 식판을 빼앗고 그를 강물에 밀어 넣기도 한다.³⁾ 영순이 ‘나쁜 엄마’가 되는 것을 견디면서까지 바랐던 것은 강호가 ‘보통’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는 것이었다. 드라마에서는 영순의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강호가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강호의 사고 이후 영순의 삶은 온통 강호가 장애를 이겨내도록 돕는 것뿐이었는데 강호가 어떻게 해도 혼자 일어설 수 없었다면, 강호까지 엄마의 희생을 배신하는 ‘나쁜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영순 역시 강호의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은 채 강호를 계속 몰아세우는 더 ‘나쁜 엄마’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장애를 ‘극복’해 내는 감격의 순간보다 장애 당사자도 이를 돌보는 사람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더 자주 일어난다. 장애를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지닐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실은 이렇듯 장애 당사자와 그 주변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애를 극복한 미래’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상황에서, 장애를 둘러싼 그 누구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장애를 ‘극복’하여 비장애인에 가까워지는 것이 장애가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형 아이언맨 로봇으로 찬사를 받았던 워크온슈트4에 대해 살펴보자. 이 슈트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착용형 로봇으로 착용자가 비장애인의 보행 속도와 비슷한 속도인 분속 40m(시속 2.4km)로 걸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워크온슈트4는 이 슈트를 착용한 사이베슬론 선수들이 2020 사이베슬론 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며 더욱 주목받았다.⁴⁾ 한편, 당시 대회에 참가해 동메달을 받았던 이주현 선수는 처음 기기를 착용하고 이에 적응해 갔던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 말했다. 그는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나서도 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로 있어야 했으며 이는 많은

3) 장하원, “‘나쁜 엄마’는 자식 강호의 장애에 가혹했다...관심은 걸까?”, 한겨레21, 2023. 6. 26.
4) 장길수, “KAIST 공경철 교수 연구팀, ‘워크온슈트 4’ 공개”, 로봇신문, 2020.06.15.

장애인이 보조 공학 기기를 착용할 때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⁵⁾ 보조 공학 기기를 착용하는 것은 이 같은 감정적 측면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다. 보조 공학 기기와 몸을 맞추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결함과 불가피한 교체가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적인 신기술로 보조 공학 기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매우 오랜 시간을 거쳐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이를 평생 자신의 신체 일부로써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KT '마음을 담다' 광고 '제 이름은 김소희입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그러나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처음으로 장애가 없는 ‘그들의’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에 환상을 가진다. 많은 미디어는 이 환상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기술을 통해 손상을 극복하고 ‘평범’한 삶을 경험하는 과정을 낭만화하여 콘텐츠로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비장애인은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장애인이 조금이나마 비장애인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기쁠지 추측하며 감동받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평범한’ 몸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한다. KT의 ‘목소리 찾기’ 프로젝트가 한 예시이다. KT는 인공지능(AI)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태어나자마자 청력을 잃은 농인 김소희 씨의 목소리를 만들었고 이 과정을 광고로 내보냈다. 해당 광고에는 김소희 씨가 KT가 만들어 낸 목소리로 말하자 그가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들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

5) 이주현, “아이언맨처럼 멋있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비마이너, 2021.07.22.

움을 털어놓았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광고 영상은 현재까지 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받았지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등은 해당 광고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벽허물기는 “해당 광고에서는 농인과 수어 소통 장면이 거의 없었으며 수어를 할 수 있는 가족도, 수어를 배우려는 태도도 없었다. 그러나 이는 이들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벽허물기는 이러한 광고는 한국어의 하나로 인정받은 수어를 비가시화하고 음성언어만이 완전한 언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⁶⁾ 사실 ‘목소리 찾기’라는 명칭 자체가 농인들은 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리 내어 말해야 한다는, 나아가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문화에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가 있는 몸을 비장애인에 맞추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 수 있다. 비장애인 중심의 기술은 장애를 만들어 낸 사회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개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를 지닌 몸을 토대로 구축해 온 삶의 방식은 철저히 무시된다.

수전 웬델의 『거부당한 몸』에서는 우리 사회는 규정될 수 없는 다양한 몸의 형태를 통제하고 완벽하게 만들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믿음을 거스르는 것 중 하나가 장애라고 말한다. 장애는 일반적인 질병처럼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기에 치료라는 개념이 완전히 성립하지 않는다. 장애에 동반되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치료는 필수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몸과 비슷해지기 위한 교정이 치료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며, 그런데도 장애인의 몸은 비장애인과 완전히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한 몸으로서 현대 기술과학의 실패에 대한 상징으로 남겨진다.⁷⁾

이 지점에서 인간의 몸이 가진 근본적 취약성을 견딜 수 없어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등장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우리가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의 미래 진화를 좌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확신을 근거로 삼는다. 이들(트랜스휴머니스트)은 우리가 노화를 사망 원인에서 배

제할 수 있고 그래야 하며,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향상할 수 있고 그래야 하며, 우리가 기계와 융합되어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개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⁸⁾ 요약하자면 트랜스휴머니즘은 앞으로 인간은 기계와의 결합을 통해 인간 본연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는 다소 무모하고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기에 트랜스휴머니스트는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장애 문제를 가져온다. 지금 여기에 일종의 사이보그인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가 ‘결함’ 없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그리는 세상에서는 어떤 몸이라도 기술의 힘을 통해 증강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과 불평등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장애와 기술에 대한 논의를 잠깐 가져올 뿐인 부유한 백인 남성들이 상상하는 세상에 장애인이 걸 자리가 있을까.



김상희 씨가 구매한 다기능 전동 휠체어

장애인 인권 활동가 김상희 씨의 비마이너 칼럼 ‘29일간의 병원 생활’ 시리즈는 현실에서 장애인이 기술과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김상희 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물리치료 과정에서 경추에 금이 갔었는데, 이것이 성인이 된 후에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6) 이가연, “우리는 ‘목소리 없음’ 사람이 아니다” 농인들, KT 광고 차별 진정, 비마이너, 2020.04.23.

7)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황지성·김은정 옮김, 그린비, 2013, 186-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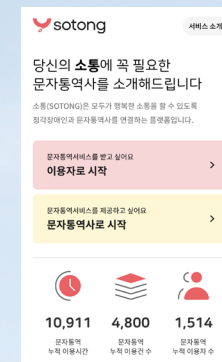
8) 마크 오코널, 『트랜스휴머니즘』, 노승영 옮김, 문학동네, 2018, 15.

나타나 결국 수술을 거듭하게 된다. 이후 그는 후유증 때문에 다리 관절을 자동으로 움직여 보행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로봇 치료를 받는다. 그는 이 로봇 치료의 목적 자체가 그가 바라는 통증의 제거보다는 '정상' 신체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만 있으며, 사용된 최첨단의 기기 역시 많은 재활 치료 기구가 그렇듯 장애를 지닌 규범 밖의 몸은 배제한 채, 비장애인의 반듯한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느낀다.⁹⁾ 이후 그는 고질적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 끝에 고가의 다기능 전동휠체어를 구매했고 이는 통증을 줄여준 것은 물론 실생활 여러 면에서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언뜻 보기에 '요란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때로는 이를 쓸데없는 사치라고 치부하기도 했다. 김상희 씨는 휠체어를 향한 이런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누군가 휠체어의 가격을 물어올 때마다 위축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¹⁰⁾ 비장애인의 잦은 장애와 기술의 결합에 개입하는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은 어떤 기술과 만나더라도 자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떤 테크놀로지와 만난 인간의 주체성은 이를 통해 기능적인 자유를 얼마나 획득하느냐가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를 '지배할 자격'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¹¹⁾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은 기술이 일상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기술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장애를 지닌 몸들은 직간접적으로 기술과 만나게 된다. 기술은 장애를 지닌 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매우 필수적이기도 하다. 앞서 이야기해 온 장애와 기술의 불화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기술이 그 목적을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여 '정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장애 문제를 없앨 것이라는 생각이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공고해졌고 장애인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기술에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기술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장애인의 삶에 들어와 실질적인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9) 김상희, "최첨단 재활 치료와 몸에 대한 환상", 비마이너, 2021.08.07.
 10) 김상희, "보조공학 기기와 나의 삶, 욕망에 대하여", 비마이너, 2020.09.16.
 11)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2021, 100.

에이미 햄라이와 켈리 프리츠가 발표한 「크립 테크노사이언스 선언」¹²⁾은 장애와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한다. 두 저자는 기존의 주류 장애 기술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상정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기술이었으며, 이때 장애인은 항상 기술의 혜택을 받는 소비자로서만 남았다고 비판한다. 크립 테크노사이언스는 기존의 지식 생산과 소비라는 구도를 뒤집어 장애인과 장애 공동체가 직접 만들고 건설하는 기술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크립 테크노사이언스의 원칙 중 "통합이 아닌 정치적 마찰과 논쟁의 장소로서 '접근성'을 드러낸다"라는 대목에서 비장애인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가치적 측면으로서 접근성을 쟁취하겠다는 능동성을 읽어낼 수 있다. 당사자 하차철 시위조차 힘오에 부딪히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지식 생산자로 나선다는 것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크립 테크노사이언스는 장애인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존의 기술을 재구성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세계를 일구어 나가는 것에 주목한다. 놀랍고 혁신적인 발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적 경험 하나하나가 장애인에게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¹³⁾



에이유디는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에서 겪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통역에 필요한 IT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박원진 이사장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애 당사자로 대학교 졸업 후 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수업 환경과 관련된 모든 지원이 끊기면서 인터넷 강의조차 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이유디를 설립했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어통역센터만 있을 뿐 문자통역 지원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에이유디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러 기관과 개인에 전문 교육

12) Aimi Hamraie and Kelly Fritsch, "Crip Technoscience Manifesto", Catalyst: Feminism, Theory, Technoscience, Vol. 5, No. 1, 2019.
 13) 김초엽·김원영, 앞의 책, 186-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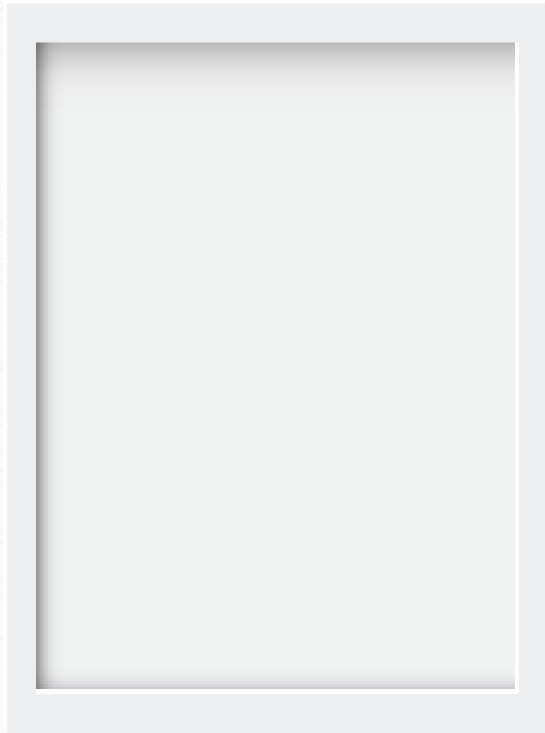
을 받은 문자통역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 문자통역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앞으로 문자통역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¹⁴⁾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방식을 어떻게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술이야말로 장애 중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장애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먼 미래로 상정되었다. 한국 사회는 당장 '일부'가 겪는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대부분의 장애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논의를 미뤘고 현재 장애인이 어떤 기술을 통해 생활하고 어떤 기술에서 배제되고 어떤 기술을 바라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언젠가' 존재할, 상공을 가로지르는 사이보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미래에 대체 무엇이 있을지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그 미래에는 모든 몸이 장애 없이 '완전'할 수 있을까? 몸에 대한 사회적인 표준과 규범이 존재하는 한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도 장애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이는 김초엽의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속 주인공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번,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 기술과 결합하여 증강된 몸 사이에서도 어떤 몸은 맞고 다른 어떤 몸은 틀릴 것이다. 결국 틀린 몸들은 여전히 남겨진다. 우리는 누구도 사회에서 밀려나 남겨지지 않도록 손상이 장애가 되는 비장애인 중심의 현재 사회를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비장애인의 생활양식을 따르도록 장애인을 등 떠밀어 합일하는 세계가 얼마나 편협한지 인지하고 절대적인 정상 없이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떠올려야 한다. 기술이 사회 전체가 연립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세계를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펼쳐는 상상,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행동이다.

참고문헌

-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2021.
- 마크 오코널, 『트랜스휴머니즘』, 노승영 옮김, 문학동네, 2018.
-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황지성·김은정 옮김, 그린비, 2013.
-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 염수빈·정원희,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관람 전 복습자료② ‘빌런 총정리’ 편”, 서경스타, 2021.12.17.
- 장하원, “‘나쁜 엄마’는 자식 강호의 장애에 가혹했다…괜찮은 걸까?”, 한겨레21, 2023. 6. 26.
- 이주현, “아이언맨처럼 멋있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비마이너, 2021.07.22.
- 장길수, “KAIST 공경철 교수 연구팀, ‘워크온슈트 4’ 공개”, 로봇신문, 2020.06.15.
- 최유경, “농인이 왜 음성언어로 말해야 하는가?”, 비마이너, 2020.04.06.
- 이가연, “우리는 ‘목소리 잃은’ 사람이 아니다” 농인들, KT 광고 차별 진정, 비마이너, 2020.04.23.
- 김상희, “최첨단 재활 치료와 몸에 대한 환상”, 비마이너, 2021.08.07.
- 김상희, “보조공학 기기와 나의 삶, 욕망에 대하여”, 비마이너, 2020.09.16.
- 김원영, “소셜벤처 창업가들, 장애를 가진 삶을 존중하는 기술과 서비스”, 비마이너, 2021.07.20.

14) 김원영, “소셜벤처 창업가들, 장애를 가진 삶을 존중하는 기술과 서비스”, 비마이너, 2021.07.20



〈오월, 광주〉

내년 오월에도 광주에 간다면

수습편집위원 어푸

광주로 가는 길

5월의 어느 주말, 학교에서 꾸린 광주기행단원들과 함께 광주광역시로 향했다. '기행'으로 광주를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몇 해 전 떠나왔고 이제는 멀게 느껴지는 고향을 '역사기행'으로 방문한다는 것이 꽤나 낯설어,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에 몸을 실은 뒤에도 산발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새삼스레 광주에 깃든 역사를 살피려 가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1980년 오월의 광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던가, 그렇다면 이번 기행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수업을 대신해 보았던 다큐멘터리와 영상자료들, 평소에는 부를 일 없는 노래를 부르던 행사들, 광주 토박이 어른들이 해준 이야기들,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 낸 순간들이 떠올랐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며 보고 듣고 살았던 '오월'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 어떤 감각으로 다가올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금남로와 망월동 묘역을 차례로 방문하는 동안 몇몇 인상적인 장면을 마주쳤다. 그 장면들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묘한 이물감으로 남아, 기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이 글은 그 장면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광주기행의 장면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오월봄 순례단

13일, 광주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구 전남도청이 위치한 금남로 일대였다. 문화해설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밥을 먹고 전일빌딩245의 전시실로 올라갔다. 전일빌딩245는 고층 외벽과 내벽에 245개의 탄흔이 남아 있어 당시 헬기사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간으로, 오월을 맞이해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 안에서 나는 파란색의 삼각 깃발을 들고 전국에서 '민주화의 성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행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파에 떠밀려 일행들과 따로 떨어져 전시를 관람하는 동안에도 전시관 곳곳에서 이들과 동선이 겹쳤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시의 헬기사격을 재현한 에

니메이션을 낫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전일빌딩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두 번째 장면을 맞닥뜨릴 수 있었다. 장구와 북을 어깨에 메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풍물패 너머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글자가 적힌 빨간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저마다 손에 "이대로 살 수 없다!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빨간 피켓을 들고 있었다.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생중계 영상에서 이들은 80년의 광주를 "노동자, 시민이 모여 만들어낸 자치공동체", "노동자 민중의 대동세상"으로 이야기하며, "2022년 또 다른 독재의 등장", "검찰독재"에 맞서 "80년 5월 시민군의 정신으로 저항을 넘어 퇴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동한 전남대학교에서 세 번째 장면을 마주했다. 금남로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면, 전남대 정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공터에서는 '전국 대학생 오월봄 순례단'이 흰 티셔츠를 입고 일제히 트럭 차량 무대를 바라보며 오월을 기리는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월의 청춘, 역사를 지키다>라는 제목의 문화제에서는 1980년 5월 당시의 참혹함을 담은 영상이 송출되었고, 뮤지컬 동아리가 뮤지컬 <영웅>의 대표곡인 <누가 죄인인가>를 공연하며 해방광주의 장면들과 구 전남도청에서의 최후 항전 장면들을 재현하였으며, 합창 동아리는 민중항쟁의 대표곡으로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기행의 경로에서 마주친 이들은 영령들을 기리는 동시에 '오월정신 계승'을 주되게 언급했다. 이는 방문객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공식 구호 역시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였다. 오월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기념행사들은 '오월정신'의 계승을 외치곤 하며, 이는 오월이라는 특정한 시기에 광주라는 도시를 찾는 행위의 중심에는 '계승'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실천이 존재

1) 민주노총. "[생중계] 제43주년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YouTube, 2023.05.13., <https://www.youtube.com/watch?v=S30dKyHdxIA>. (2023.06.25 접속.)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때 계승하고자 하는 '오월정신'이란 무엇일까? 그토록 많은 사람이 광주를 찾아와서 물려받고 이어 나가고자 하는 그 정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언급한 세 집단이 계승하고자 한 오월의 정신은 현재의 정치적 문제와 부착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월정신'의 보편적 의미는 어떤 과정을 통해 자리 잡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5·18이 전개된 흐름과 더불어 5·18이 각종 학술 및 정치 담론 속에 배치된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5·18의 배경과 전개, 이후 판결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암살되며 7년 동안 지속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민주화에 대한 희망이 촉발된 것도 한때에 불과했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12월 12일 쿠데타를 감행해 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며 신군부 독재 체제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이듬해인 1980년 봄, 학생들은 민주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학내에서 이루어지던 투쟁은 점차 확대되어 5월 14일에 접어들어서는 학교를 벗어나 가두시위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14일과 15일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은 광화문 등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²⁾ 광주의 학생들 역시 5월 14일부터 3일 동안 금남로에서 행진하는 등 시위를 벌였고, 시민들이 합세해 5월 16일, '햇불집회'라고도 불리는 '3차 민주화대성회'가 개최되었다. 시위에서 박관현 전남대 회장은 학생들과 문제가 생길 경우 18일 오전 학교 앞에서 만나기를 결의했고,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자정,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이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5월 18일 오전, 전남대 정문에서 오십여 명의 대학생들이 계엄군에게 등교를 저지당한 사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위에 존재한다. 다음은 이후 열흘 동안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2) 5·18기념재단. "제2장.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 5·18기념재단, <https://518.org/nsub.php?PID=010102>. (2023.08.26 접속.)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 전남대 및 금남로 시위 전개, 공수부대의 강경진압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부대원의 최루탄 공격, 시민들의 투석전 •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계엄군 첫 발포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만여 명의 시민 시위 참여 • 택시, 버스, 트럭 등의 차량 시위 • MBC, KBS 건물 방화 • 시위대 도청, 광주역, 조선대에 결집
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의 집단발포 발생 • 공수부대 도청 사수 포기시위대의 도청 점령
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수부대의 광주 봉쇄작전 전개 • 광주광역시 내부 수습대책위원회 형성
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수호 범시민결기대회 개최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건파와 항쟁파의 갈등 발생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쟁지도부 탄생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군이 재진입하고 있다는 소문 도청에 입수 • 두 차례의 범시민결기대회 등 개최
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 계엄군 도청으로 진입해 시민군 소탕작전 시행

계엄군의 진압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강제로 봉합되어 버린 27일 직후, 신군부는 군사 재판에서 광주 시민의 저항을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 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가혹하게 처벌했다. 이 과정에서 총 2,522명이 검거되었으며, 훈방 1,906명, 군법회의 회부 616명, 그 가운데 212명이 불기소 처분되었고, 404명이 군사 재판을 받았다. 1981년 3월 31일 대법원은 83명에 대하여 계엄법 위반, 내란주요임무중사, 살인 등의 죄목으로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지 3일 만인 4월 3일, 관련자 83명 전원에게 대해 특별감형, 특별사면 또는 복권 조치가 취해졌다.³⁾

이 판결은 17년 후, 1997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5·18이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이며, 다름 아닌 신군부의 광주 시민 학살이 '내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판시했다. 동시에 발포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였던 보안사령관 전두환,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국방부장관 주영복, 계엄사령관 이희성을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했다. 이는 시민군과의 교전과 사상자 발생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작전 감행을 명령한 것은 분명 살상 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한 것이라는 판결이자, 계엄군의 작전이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임을 법적 언어로 명시한 판결이었다.

5·18을 둘러싼 담론, 그 변화의 과정

사건 발생 당시 광주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지화와 은폐의 전략이 작동했다.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에 주둔하는 열흘 동안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광주 지방 TV 뉴스에서조차 20일, 18일과 19일 '소요'로 인해 경미한 피해가 있었고 연행된 176명을 모두 귀가시켰다는 왜곡된 내용만이 겨우 보도되었다. 공수부대원들의 폭력 행위는 광주와 인근 호남 지방에서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음알음 공유될 수 있었다. 최초의 전국 언론 보도는 21일 계엄사령군의 발표로, 계엄사는 "서울을 이탈한 학원

3) 5·18기념재단. "제3장. 5·18민주화운동과 유혈 진압." 5·18기념재단, <https://518.org/nsub.php?PID=010103>. (2023.09.02 접속.)

소요 주동 학생 및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트린 데 기인⁴⁾한 사건으로 광주에서의 상황을 일축했다. 진압부대의 작전이 막을 내린 27일에는 신군부에서 계엄사령부 명의로 “광주 사태”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해당 담화문에서 광주의 열흘은 ‘유언비어’에 의해 순수한 시민들이 선동당하고, ‘무장 폭도’들이 난동을 일으킨 ‘사태’로 규정되었다. 도청을 진압한 신군부의 ‘내란’ 판결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오랫동안 사안에 대한 침묵이 요구되었다. 오늘날 5·18이 민주주의 사회를 가능케 한 현대사의 이정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5·18을 둘러싼 치열한 담론 투쟁의 성과이다.

1983년 말 학원 자율화 조치에 따라 부흥한 학생운동권은 5·18을 공적 기억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의미화 작업에 착수했다. 1984년 5월 19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아, 5월이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를 발표해 광주에서 투쟁하는 주체인 ‘민중’을 발견해 냈고, 이는 국가권력이 생산하고 배포한 ‘폭도론’과 ‘유언비어론’에 대항하는 ‘민중론’의 토대가 되었다. 이듬해인 1985년 〈광주민중항쟁의 현대사적 재조명〉은 최초로 소수 영웅적 인물들의 의거나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이 아닌 ‘민중항쟁’의 형태로 5·18을 재규정했다. 해당 자료는 이미 이전의 운동에 의해 광주의 의식이 성숙한 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광주 지역의 경제적 계급적 특수성을 ‘항쟁’의 동력으로 지목한다. 같은 시기에 출판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학술부의 〈5·18민주혁명성 고찰〉 역시, 다소 낭만적인 시각에서 5·18 민중의 혁명적 의식이 이미 ‘충만’해 있었다고 서술한다. 6월 항쟁 이후인 1989년, 이정로는 민중을 ‘순진한’ 피해자로 그려내는 자유주의적 시각에 분개하며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으로 5·18의 투쟁의 주역이 노동자 계급이라고 노동계와 지식인층을 향해 과감하게 선언한다.

이처럼 학생운동권, 재야운동권과 노동운동이 양적으로 팽창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5·18의 해석은 맑시즘적 계급투쟁과 혁명의 논리로 발전했다. 조대엽은 이에 대해 “특정 시기의 문화적 모순과 역사적 사건은 집합적 신념을 형성하는 역

4)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2012, 44.

사적 맥락의 문화적 원천⁵⁾임을 제시하며, 5·18의 경험이 80년대에 격렬한 민주화운동의 집합적 신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이야기한다. 광주에서 자행되었던 폭력의 경험은 국가폭력이 일반적으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탈선을 할 수 있음을 일깨웠고, 사회운동 세력은 정권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습득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정부, 그리고 군대의 존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관한 물음을 던지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 제기는 실천적인 운동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당시의 시민들을 민중으로 호명하고 이들의 계급적 맥락에서 투쟁의 동력을 설명하는 이 같은 해석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비판을 마주한다. 가령 사회과학자 최정운은 민중론이 항쟁의 배경으로 지목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호남 차별에 대한 불만과 원한, 당시 광주 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계급성 등의 타당성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관점이 광주의 경험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많은 광주 시민들이 투쟁의 첫째 이유로 지목했던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폭력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의 진압이 준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해 짓밟힌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이후 학자들은 우리의 사회적·문화적 의식을 깨뜨리는 자연적인 것들, 이를테면 죽음, 피, 절규와 눈물 같은 것들 위에서 5·18 당시의 도덕성과 윤리가 일어섰음에 주목한다. 박준상은 “그 자연적인 것들에 비하면, 모든 관념은, 당시에 또한 지금까지 이 사회 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독재 타도’ ‘민주화’ ‘공동체의 이념’ ‘저항과 희생의 정신’과 같은 정치적 도덕적 관념들조차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⁶⁾”라고 하며, 사회과학적 맥락 이전에 존재했던 ‘몸’을 가진 인간의 윤리를 강조한다.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

5) 조대엽, 『광주항쟁과 80년대의 사회운동문화』, 『민주주의와 인권』, 3권, 1호, 2003, 183.

6) 김형중·이광호 역음, 『무한텍스트로서의 5·18』, 문학과지성사, 2020, 175.

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 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결합한”⁷⁾ 이른바 ‘절대공동체’는 오늘날 5·18을 해석하는 중심축 중 하나이다. 시민들의 저항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처지’였기 때문에 폭력을 묵과할 수 없는 전통적 공동체에서 출발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구성된 절대공동체는 “사유재산도 없고, 생명도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었”⁸⁾으며, “계급도 없”⁹⁾는 곳이었다. 이는 5·18이 결국은 국가폭력에 의해 진압되었음에도 고귀하고 숭고한 승리로 기억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이다.

한편, 절대공동체론 역시 당시 시민들이 보인 윤리성과 공동체성에 주목하는 어떤 매끄러운 서사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김정환은 5·18에서 공유되었던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반공’과 ‘자유민주주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5·18의 운동적 성질을 사회운동과 달리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며,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장기적이지 아니라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한 후 소멸하는 ‘대중(masses)운동’¹⁰⁾으로 설명한다. 이는 곧 5·18이라는 저항의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동기와 참여의 양태와 감정의 역동을 경유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증언 및 구술 채록 작업들은 절대공동체론 내부에 포섭되지 않는 기억을 기록하고, 서사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 왔다.

여성의 목소리는 민중과 공동체의 숭고함이 담론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주변부 서사 중 하나이다. 주류의 5·18 담론은 특정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여성의 신체, 주먹밥을 만들어 준 어머니들,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나누어준 술집 아가씨들,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가두방송을 한 여학생... 그러나 당시 광장에는 이외에도 투사회보와 같은 각종 유인물과 대자보 제작, 선전 활동, 시신 수습과 유가족 지원, 싸움을 위해 꾸준히 지속되어야만 했던 식사 준비, 연락과

7) 최정운. 앞의 글, 171-173.

8) 위의 글, 175.

9) 김정환. 「5·18 광주항쟁의 이데올로기 연구」, 『기억과 전망』, 18호, 2008, 77.

네트워크 연결, 총기 전달과 도청 사수 등의 보안 관리, 신분증 제작, 재봉, 모금과 물품 조달, 부상자 간호와 치료 행위와 같이 다양한 저항 행위가 존재했다.¹⁰⁾ 강렬한 공동체적 표상을 형성하기 위해 누락되었던 이들의 경험과 증언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5·18을 둘러싼 담론에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오월정신’의 선택적 계승과 재현

5·18이 결코 단일한 성질의 집단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 봉기한 사건이 아니듯, ‘오월정신’ 역시 하나의 정신, 또는 의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월정신은 주먹밥과 피를 나누어 이웃을 도왔던 공동체 정신을 의미할 수도, 국가폭력과 그에 대항하는 인간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외침으로 해석할 수도, 국가폭력을 목인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민족 자주성으로도, 민중의 계급투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으며, 앞서 나열된 그 어느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일찍이 박구용은 ‘광주정신’이라 불리는 것이 “광주라는 도시공동체에 내재하는 이념적 실체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만남과 소통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광주 시민의 동일화 과정에서 생성된 가상”¹¹⁾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진보적 대항 이데올로기는 운동성 내지는 저항성의 획득을 목적으로 특정한 표상과 ‘민중항쟁’이라는 명명 위에서 5·18을 설명해왔으며, ‘오월정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끊임없이 호명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오월봄 순례단의 집회는 이러한 경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를 다룬 보도자료에서 5·18은 “군사독재 총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저항의 귀감으로, “노동자, 농민, 학생, 상인, 도시민민 모두가 함께 싸웠던” 투쟁으로 이야기되었으며, 결의문에서는 10·26 참사와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살인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자는 선언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특히,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나눔과 연대의 세상을 만들었던 5월 정신이 건설노조 탄압에 맞

10) 김영희. 「‘5·18’ 서사의 표면과 ‘여성’ 구술이 만드는 파열」, 『한국문화연구』, 71집, 2023, 273.

11) 박구용. 「문화, 인권, 그리고 광주정신」, 『민주주의와 인권』, 7권1호, 2007, 155.

신 양회동 열사의 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하며, “민중항쟁의 역사를 계승”¹²⁾할 것을 말했다. 여기서 민주노총이 5·18을 ‘민중항쟁’으로 호명한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삼민주의¹³⁾와 영웅적 투쟁을 강조하는 이 같은 명칭은 80년대 중반에 설정된 민중론의 노선을 명백히 계승한다. 이 과정에서 5·18은 80-90년대의 운동에서 그랬듯이,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의 상징”이나 “사회의 상층부에 오른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의 상징”¹⁴⁾으로 발화되었다.

나아가, 5·18이 노동자부터 농마주이로 대표되는 도시민민을 포함하여 광주 시민 ‘모두’의 투쟁이었음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나눔과 연대를 부각하는 발화들은 공동체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21일 도청 점령 직후부터, 하나인 듯 보였던 시민들 사이에서 계급적 균열이 드러나는 등 ‘나’와 ‘너’가 존재하는 전통적 공동체의 성질이 되살아났다는 사실을 누락한다. 민주노총이 그려내는 광주라는 공동체에 이러한 균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는 고귀하고 숭고한 연대를 통해 결사 항전한 ‘민중’으로 매끄럽게 그려졌으며, 이 숭고한 주체는 노동자대회의 현장에서 현 정권 퇴진을 위한 밀거름이자 퇴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강화하는 근거로 발화되었다.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민주화를 위한 집회와 시위의 장소들에서” 광주, 또는 5·18이 “거부와 저항과 비판의 근거로 나타났”¹⁵⁾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한편, 오월봉 순례단을 조직한 진보대학생넷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순례단에 참여한 500명이 넘는 대학생, 청년, 청소년은 합동참배식에서 “오월영령들께 열사의 정신

12) 송승현. “80년5월 광주처럼,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 노동과 세계, 2020.05.15.,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no=502519>. (2023.06.25 접속.)
13) 민족, 민주, 민중의 세 개념을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투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삼민주의는 1985년을 전후하여 학생운동권 및 재야운동권이 공유한 대표적인 패러다임이었다. 최정운. 앞의 글, 70.
14) 김형중·이광호. 앞의 글, 168.
15) 김형중·이광호. 앞의 글, 167.

을 기억하고 이어가겠다 약속”하고, 문화제에서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이 5·18과 이어져 있다는 것”¹⁶⁾에 공감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광주기행에서 돌아온 뒤, 오월봉 순례단에 참여한 단위의 구성원에게 순례단에서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순례단에서의 활동 중 재현 행진과 문화제를 주요 활동으로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80년 5월 당시의 장면들이 영상이나 공연의 형태로 상연되었음을 지적했다.

“[문화제]동영상에서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데 그때의 사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곱고럽고 보기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봤죠. 일단은 웬지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 오월봉 순례단 참가자 인터뷰 中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전달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강렬한 정동을 불러일으킨다. 장용주 신부가 독일의 방송자료를 녹화해 한국에 반입하고 1987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작하여 배포한 ‘광주 비디오’¹⁷⁾ <오월 그날이 오면>은 실제로 80년대 후반 신군부의 학살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6월 항쟁을 일으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5·18에 대한 더욱 복합적인 논의가 가능한 현재, 이에 대한 교육이 은폐와 축소에 맞서 광주의 참사를 알리기 위해 대학 곳곳에 격문들과 사진을 붙이던 1980년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양태로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오히

16) 진보대학생넷. “오월봉 광주 기행 보고 학생넷 회원들은 ‘오월봉 순례단’ 참가자들과 함께5/13-14 광주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페이스북, 2023.05.17., <https://www.facebook.com/jbstunet>. (2023.08.09 접속.)
17) 김용희. “1987년6월항쟁 불 땀겨 ‘광주 비디오’, 어떻게 나왔나.” 한겨레, 2023.06.11.,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95432.html> (2023.06.26 접속.)

려 5:18을 단일한 모습 속에 묶는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폭력의 기록을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감각은 보는 이를 죄책감이나 의무감과 같은 감정으로 밀어 넣는다. 이러한 재현 속에서 그 내부의 복잡한 맥락과 서로 다른 관점은 누락되어, 5:18은 실제로 모색과 탐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참혹한 사진들과 대자보들과 구호들에 등장하는 상징”¹⁸⁾에 그치기 마련이다.

“차례대로 80년대는 당시 5월 항쟁을 재현하려고 시민군 분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나 그때 학생 옷. [구호로] 그때 걸렸던 전두환[탄핵]을 걸었고요. 두 번째가 저 있었던 90년대. 그때도 대학생이랑 넥타이 부대가 있었는데 제가 넥타이 부대를 했어요. 그때 걸었던 구호가 미군 물러가라랑 통일이었고. 현대가 이제 윤석열. 이번 단체에서 걸었던 구호, 기조 같은 게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윤석열 퇴진이다. 이거였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 오월봄 순례단 참가자 인터뷰 中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월봄 순례단의 재현 행진은 궁극적으로 ‘오늘’의 문제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80년대 광주의 재현, 90년대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의 재현, 오늘날의 투쟁 세 집단으로 이어진 금남로에서의 재현 행진은 각 시대의 대표적인 구호를 경유하여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윤석열 퇴진이다”라는 기조하에 ‘윤석열 퇴진’이라는 오늘날의 구호로 수렴했다. 오월정신은 다시 한번, 단일하고 명확한 하나의 표상으로, 지금 전남대학교 정문에 모인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발화되었다. 비단 두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기 광주를 찾은 수많은 정당, 시민단체들이 ‘오월정신’을 외친 뒤 곧바로 정치적 구호

18) 김형중·이광호, 앞의 글, 170.

로 수렴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다른 ‘오월광주’를 그리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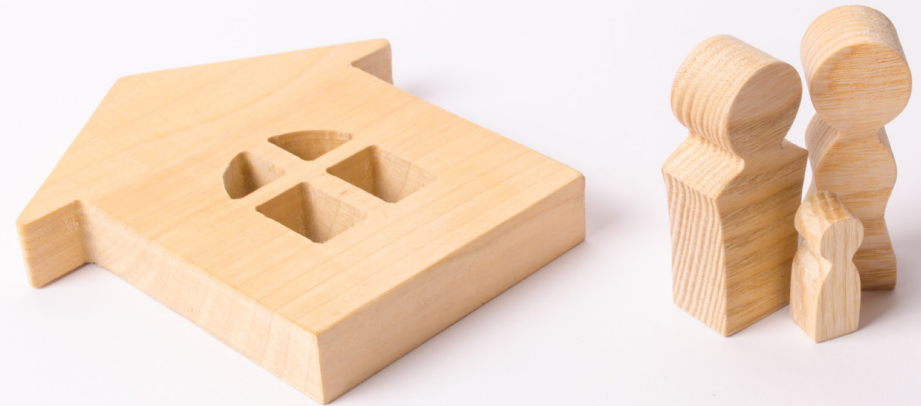
오월의 광주를 찾아가는 길의 고민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나에게 오월광주는 가까운 이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금남로 광주극장 뒷골목에 살았던 그는 80년 5월 당시 언제나처럼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깨진 돌이 굴러다니는 금남로를 지나 도착한 학교는 담벼락이 반쯤 무너져 있었다. 엄습하는 두려움에 얼어 있던 그를 학교 맞은편 병원 옥상에서 상황을 살피던 아주머니 한 분이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외쳤다. 집에 돌아가고 일주일여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에 대한 기억은 파편적이다. 겁도 없이 나돌아다니겠다고 아버지께 혼이 났고, 하루쯤 뒤 도청에 나갔던 아버지가 혼비백산이 된 채로 집으로 돌아와 “진짜 쓸 줄 몰랐다”고 중얼거린 것, 그 뒤로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 두꺼운 커튼 틈새로 내다본 광주극장의 난간 밑에 사람들이 몸을 다닥다닥 붙인 채 숨어 있고 그 위로는 수색 헬기가 뭔가를 찾아 돌아다니던 모습, 군인들이 청년들을 잡아가서 집에 중국집 오빠들을 숨겨줬던 일, 거리에 깔려 있던 흥흥한 소문들…

국가폭력은 일상을 깊숙이 침범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은 오월 전후로, 광주에 연고를 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겨우 그 맥을 이을 뿐이다. 5:18의 담론은 총과 칼을 든 국가폭력에 대항한 민중들의 숭고한 투쟁을 중심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2023년의 금남로와 전남대학교 정문에는 1980년 당시의 폭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의례적으로 전시되었고, 끝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이들과 몸을 던져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이름이 수차례 호명되었으며, 5:18 국민대회의 한편에서는 고립 속에서 나눔과 연대를 이룩한 ‘절대공동체’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주먹밥을 나누어 주는 행사가 재현되었다. 5:18은 침묵해야만 했던 암흑기를 거쳐 공적 역사에서 ‘완결된 서사’로서 자리매김했고, 오늘날 실천의 현장은 참혹하면서도 숭고한 몇몇 특징적인 장면들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무엇을 어떻게 재현하는가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선택되고 수용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앞서 살펴본 재현의 양식은 5·18을 현대사의 중심부에 배치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꾸준히 요구해온 민중항쟁이라는 담론이 5·18의 이해에 있어 지배적인 서사를 구축했음을 드러낸다. 민주화를 외치지 않았던, 총을 들지 않았던, 광장에 뛰쳐나가 결사항전하지 않았던 이들의 존재는 이 매끄러운 서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대중들의 외침은 저마다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의 입에서 말함으로써, 또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이 외침에는 민중으로서의 자기인식이나 응분의 투쟁만큼이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살아낸 (또는 살아내지 못한) 이들을 주변부로 밀어낸 채로 부르짖는 '오월정신'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아 있을까. 이제껏 주목하지 않았던 위태로운 복잡성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오월광주에서 시민들이 붙잡고자 했던 삶의 꼬트머리를 붙잡을 수 있으리라.

해체될 가족

수습편집위원 데어



지난 초여름,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 학교 가는 길에 버스를 탔다. 버스는 반포대교를 건너, 종로구를 가로질러 학교로 향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기 위한 연등 아래로 지난 몇 년간 늘 그랬듯이 현수막이 여럿 걸려 있었다.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현수막이 대부분 그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 현수막들에서 생활동반자법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대체로 이런 식이다.

“양성 기초 혼인 제도 파괴”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등을 파괴하는”



“혼인을 금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 이후 혐오 세력 단체는 본문과 같은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 혐오 세력의 입장에서 생활동반자법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족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문제적이며 가족을, 나아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이다.

하지만 왜? 가족의 해체는 왜 위기이지?

가족구성권 3법과 정상가족

생활동반자법은 정의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중 하나로, 격렬한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생활동반자법이 동성 파트너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단체의 관심을 유독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구성권 3법 모두 기존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국가의 제도 내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혼인평등법은 민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이다. 민법 제4편 친족 중 제3장은 혼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민법상 혼인은 ‘~하면 혼인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면 혼인하지 못한다’의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대표적으로는 근친혼과 중혼의 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한 혼인 신고서가 접수되면 수리되어야 한다. 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

항은 없다. 그러나 혼인신고 과정에서의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되지 않거나, 혹은 담당 공무원이 접수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서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며, 서로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 관습적 차별 뒤에서 동성혼 합법화 반대 측은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서 ‘양성’이라는 단어가 남녀를 뜻한다고 주장하며,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서 불수리는 민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합치되는 조치라고 말한다(이에 대한 법학자들의 견해는 차이를 보인다). 용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혼인평등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성 부부의 권리를 명시한다.

두 번째로, 비혼출산지원법은 현행 모자보건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 시 정부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난임”이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보조생식술 시술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원한다면, 여성은 혼인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이라 인정되는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법률안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파트너가 없는 비혼 여성이더라도 그가 임신을 원한다면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사유리 씨의 경우 비혼인 상태로 아들을 출산한 후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다는 말에 일본에서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로 임신했다고 말했다.¹⁾ 한 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는 ‘현행법상 법적 혹은 사실혼 부부만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비혼자의 시험관 시술을 거부한다고 한다. 비혼자의 출산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한다

1) 신지수, "자발적 비혼모된 방송인 사유리...인터뷰 공개." KBS뉴스, 2020.11.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49639>. (2023.08.26)

고 한다.²⁾ 비혼출산지원법은 혼인평등법 공동발의 의원 전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룰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이라는 가족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들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할 경우 혼인과 비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법이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팩스)’과 비슷한 형태를 갖는 생활동반자법은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생활동반자법에는 비혼출산지원법에 이름을 올린 의원 모두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위 세 법안은 전통적인 가족관과 도덕 즉, 정상가족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정하고자 하는 ‘정상가족’이란 무엇일까?

정상가족이란 이성異性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을 지칭한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가족 형태를 ‘올바른’ 가족 형태라고 규정하고 이외의 가족 형태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인식은 ‘결손가정’, ‘편모, 편부가정’이라는 단어에서도 나타난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은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한 가정이며, 부모 중 한쪽이 없는 가정은 “치우친” 가정이다.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민법 제77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에도 드러난다. 민법 제4장 친족 중 제779조(가족의 범위)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가족’과 ‘가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수경, "비혼 임신' 불법 아닌데..."시험관 하려면 결혼하고 오세요." 한겨레, 2023.11.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8988.html. (2023.08.2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이러한 법적 정의에 따라 생각한다. 가족은 언제나 혼인과 혈연, 입양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성원 간의 감정은 그보다 덜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니까. 하지만 나는 가족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건 친밀감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기로, 다시 말해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책임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려, 앞으로 현행 법률상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 즉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정이라고 칭하는 가족을 ‘그 가족’, 법률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돌보고 같은 공간을 나누겠다고 결정한 이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 가족’이 하는 것

‘그 가족’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거나 해악의 근원이 라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보호와 애정을 필요로 하고, 그건 단지 어린 시절에만 국한된 이야기기 아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취약하고, 우리는 서로의 취약함을 보완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이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나 민간의 보험, 사회복지법인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상상하는 개인적인 지지는 아마도 ‘그 가족’일 것이다.

농업 사회에서 여러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모여 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농업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노동력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 내의 모든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고 서로를 부양하는 상호 협력 체계 속에서 살아갔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며 임금노동자가 늘어나고, 한두 사람의 임금으로 한 가족이 먹고사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들은 결혼 후 독립하여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아버지, 가정 내 재생산 활동을 전담하는 어머니, 그들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체제가 발달했다. 핵가족은 이러한 분업 구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때 ‘그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집단으로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째는 개인에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을 공급하고 인구를 재생산하는 경제적 기본단위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국가는 ‘그 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 역할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혈연, 혼인, 입양으로 연결된 관계에 권위를 부여한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한국 현행법 조항 중 ‘가족’을 언급하는 240개 조항은 민법 제779조의 영향을 받으며, 이 조항에 따라 “주거, 의료, 돌봄, 연금, 상속, 재난 시 보호 등 삶의 전 영역의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 가족’은 중요한 관계이고, 연결되어야 하는 관계이자 연결할 수 있는 관계, 행정적으로 보장받는 관계로서 존재해 왔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기성세대가, 기독교 단체가, 혐오 세력이 가족의 해체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가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주는 사적 복지는 개인의 취약함을 비가시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누구나 취약함을 경험한다. 그러나 취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족’ 내에 있지 않을 때이다. 그러므로 가족 내의 인간은 ‘이상적인 시민’이 되며 ‘그 가족’ 바깥의 인간은 결함이 강조된다. 한국에서는 특히 그런 면이 강조된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지난 몇십 년간, 한국 정부는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보다 ‘그 가족’에게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떠맡겼다. 사람을 놓고 길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가 경제적·사회적 좌절을 맞닥뜨렸을 때 그를 돌보는 것은 ‘그 가족’의 몫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을 대신해서 책임지는 사적 복지 제도로서의 가족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조부모나 부모 또는 자녀, 배우자 등이 일정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실제 란래가 없어도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정부의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제도였다. 행정상으로는 가족이고 실제로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가족'이 오랜 기간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온 역사가 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그 가족'의 독점적인 위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서적인 안정을 '그 가족'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족 외의 다른 공동체를 상상할 수는 없을까?

돌봄의 관계

2021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 다시 말해 '법적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는 인식 비율은 64.6%인 반면 '함께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라는 인식 비율은 68.5%였다.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도 그러하다. 2020년 실시된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중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62.1%이다.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확연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 혹은 친구끼리 동거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 행위 전에 환자 본인, 혹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족의 정의를 포괄하지 못한다.

가족이 아니라면 애도할 권리도 없다.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그 가족'상 가까운 순서대로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이 아니면 장례를 주관하기 어렵다. 지난 3월 신설된 조항에서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 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

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한정되어 있다.

두 사람이 동거를 선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한 가구로 묶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다. 주택과 관련한 신혼부부 대출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가산점도 특별공급도 받을 수 없고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의 순위에서 밀린다. 한국의 주택정책이 법적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연금, 보상금, 보험금의 수령도 불가하고,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이다. 온 사방에서 '너희는 가족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상황에서 그들 자신이 가족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미약하기만 하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맺힌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호 경제적·감정적 연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가족의 정의와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그것 역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그 가족'은 완벽하게 이상적인 기본 단위가 아니다. 또한 당연하지도 않다. 누군가는 '그 가족'이 없거나 같이 살지 않는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가족의 형태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법이 어떻게 실재한다. 한국은 법률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만큼, 가족 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쉽게 지워지고 부정될 따름이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보호와 함께 감정적인 지지를 기대한다. 나에 대한 애정. 서로에 대한 책임. 소속감, 연결감. 사랑. 그런 감정을 바란다. 그리고 그건 혈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감정들은 아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감정을 가족 바깥에서 얻고 있다. 친한 친구. 어쩌면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동거들. 또는 같이 살기까지 하는 나와 마음이 잘 맞는 룸메이트. 생활동반자법은 그런 관계를, 우리의 시민적 유대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인간에게 당연한 관계는 없다. 모든 관계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그 가족'이라는 관계가 통상 좀 더 쉬워 보이는 까닭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 개인이 원가족에서 원가족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다 충분히 크고 나면 결혼함으로써 자신만의 원가족을 만든다. 그사이에

만들어지는 관계들, 기숙사나 하숙집이나 자취방이나 셰어하우스에서 그가 형성한 관계들은 가족이 아니고, 그 시간은 일종의 공백으로 남는다. 관계는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하지만 대학에서, 처음으로 본가를 나오고 ‘그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드는 바로 그 관계가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참고문헌

-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동아아시아, 2017
- 이숙진. 「한국 개신교의 정상가족 만들기 - 타자화와 주체화 전략을 중심으로 -」, 『종교연구』, 82권, 1호, 2022, pp.87-112.
- 이재희.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한 혼인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4권, 4호, 2018), pp.69-108.
- 소현숙. 「가족 근대화의 모델 찾기에서 가족 ‘정상성’에 대한 성찰로 : 한국 현대 가족사 연구 동향과 과제」, 『역사문제연구』, 25권, 2호, 2021, pp.351-388.
- 여성가족부, 「제4차 가족실태조사」, 2021
- 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의안 원문 - 장혜영의원 등 14인, 제2122404호 (2023. 5. 31.). 제406회 국회(임시회)
- 신지수, “‘자발적 비혼모’ 된 방송인 사유리… 인터뷰 공개.” KBS뉴스, 2020.11.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49639>. (2023.08.27)
- 송다영, “[인터뷰]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한 이유는요...” THE FACT, 2023.04.27, <https://news.tf.co.kr/read/ptoday/2014417.htm>. (2023.08.23)

참고문헌

- 이병국, “정상가족은 없다!.” Le Monde diplomatique, 2021.06.30,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55>. (2023.08.15)
- 신주영, “정의당, ‘가족구성권 3법’ 추진… “가족 선택할 자유는 보편적 권리.”” 경향신문, 2023.05.31,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5311631001#c2b>. (2023.08.25)
- 정희완, ““무슨 관계시죠?” 물음에 머뭇거리는 ‘가족’.” 경향신문, 2023.04.16,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16083003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3.08.26)
- 송경호, ““동성혼 합법화하는 ‘가족구성권 3법’ 철회해야.”, 크리스천투데이, 2023.06.17,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4870>. (2023.08.24)
- 노형구, ““생활동반자법안, 동성결합까지 부부관계 확장 목적.”” 기독교일보, 2023.05.04,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4857>. (2023.08.24)
- 임보혁, “사실상 동성혼 인정하려는 것, 생활동반자법 반대”.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2023.05.12,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8254991&code=61221111&sid1=all>. (2023.08.24)
- “결혼”, 표준국어대사전
- “치우칠 편”, 디지털 한자사전
-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 “건강가정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정리정돈

실천활동

버스타고 찾아가는

외국인보호소 폐지 문화제



실천활동 - '버스타고 찾아가는 외국인보호소 폐지 문화제'

문우편집위원회(이하 '문우')는 6월 23일 IW31이 주관한 <버스 타고 찾아가는 외국인 보호소 폐지 문화제(이하 '버싯페')>에 참여했다. 외국인보호소는 정해진 체류 기한을 넘 기거나, 국가의 허가 없는 취업 혹은 이직 등의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이 된 강제퇴거 대상 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소개란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안전 하게 보호하여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곳의 실상은 '보호'나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2021년 9월, 하나의 사건을 통해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외 국인보호소에서 독방에 갇힌 M씨가 양팔과 양다리가 결박당한 채 손목과 발목을 뒤로 꺾 는 '새우껍기' 고문을 받은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¹⁾ M씨는 난민 신청 자격을 연장 하는 기간을 겨우 하루 놓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M 씨는 목조르거나 수갑, 포승줄, 머리 보호구, 박스테이프 등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일상적 으로 당했고 이는 최대 4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 이제껏 CCTV 보존 기간이 짧아 입 증할 수 없었던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가혹행위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의 실태가 여럿 기사화되었지만, 2023년 현재까지 상황 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쇠창살이 쳐진,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수십 명이 화장실 하 나를 두고 생활한다. 직원으로부터 24시간을 감시당하는 그들은 '보호외국인'이라는 글자 가 쓰인 '보호복'이라는 단체복을 입는데, 이는 마치 죄수복처럼 보인다. 제대로 된 밥도 먹 지 못하는 데다,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탓에 의료 서비스 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 대해 항의하는 행위는 '난동'으로 취급되어 독방에 감금되거나 결박당한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 가에 송환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보호소는 그가 출국할 때까지 그를 '보호'한다. 그러나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본국에 갈 수 없는 난민 신청자는 출국의 기약조차 없이 구금된다.

1) 이은기, "외국인보호소 CCTV에 잡힌 '새우껍기', 무슨 일 있었나", 시사IN, 2021.11.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91>.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출신국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강제퇴거' 또는 '보호일시해제'이다. 하지만 보호소에서 나오더라도 미등록이주민들의 인권은 보장 되지 않는다.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났더라도 여전히 국내 체류 자격은 주어지지 않기 때 문이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는 이주민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불법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신분증이 없기에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집을 구할 수도 없다. 때때로 보호일시해제는 보호소 측에서 구금 이주민을 내보내거나 자신들 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도 쓰인다.²⁾ 보호소에서 구타, 부상, 방치 등의 문제로 이주 민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보호일시해제를 대가로 이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거나, 서 둘러 이주민을 강제 출국시켜 버리기도 한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라는 이름과는 반 대로, 오히려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글 초반에 언급했던 '새우껍기' 고문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후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인 M씨가 보호소 밖으로 풀려 나오자, 활동가 아정은 "그의 일상을 하루씩 돌아가며 조력 해 보자는 의미에서 각기 다른 활동을 하는 서른한 명에게 편지를 썼"³⁾다. 이에 다양한 곳 에서 활동하고 연구하던 31명이 모여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International Waters 31, IW31)'이 꾸려졌다. IW31은 외국인보호소 폐지 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탈

2) 박이랑,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노동자연대(448호), 2023.1.6., <https://wspaper.org/article/28800>.

3) 박주연, "네 '이웃'을 가두거나 쫓아내지 말라", 일다, 2023.02.24., <https://www.ildaro.com/9570>.



시설 운동, 동물해방 운동 등 활동 범주를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다. 이주민과 난민을 '국경'에 가두어 생각하지 않고 "취약성을 가진 이주민들이 그들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조건 속에 놓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이주민, 난민을 넘어 성소수자, HIV감염인, 정신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겪는 문제의 핵심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정의 설명이다. IW31은 동물들이 평생 축사에 갇혀 산다는 '감금'의 면에 주목하여 '인'권활동의 틀을 깬다.

IW31이 주관한 '버찾페' 활동은 이름에서처럼 크게 '버스 타고 찾아가는 / 외국인보호소 폐지 문화제'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기 어렵다. 이에 IW31은 참가자들이 함께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갈 수 있도록 버스를 대절하여 접근성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자 했다. 이때 IW31이 대절한 버스는 저상버스로 보다 많은 사람의 공간적 장벽을 허물고자 했다. '찾아가기'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보호소 폐지라는 이슈에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현장 문화제는 참여자들에게 현행 이주구금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인보호소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제의 참여자들은 피켓을 만들어 함께 소리치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주변을 행진했다.



4) 위의 글.

문우는 버찾페에 참여하기 전, 해당 문화제와 관련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및 구금이주민 이슈, 탈시설 운동 등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교양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 자료는 외국인보호소의 실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기사인 "외국인보호소 CCTV에 잡힌 '새우튀기', 무슨 일 있었나"와 탈시설 운동에 관한 책인 「시설 사회, 9-10장으로 선정되었다. 한국 사회가 규정하는 '외국인', '민족국가'라는 정체성이 유지되는 방식, 장애 담론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탈시설'이라는 화두가 외국인보호소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이유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버찾페 당일 아침, 사당역 근처 주차장에 참여자들이 모였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서로 왜 버찾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소속 활동가들, 문우편집위원회와 같은 대학생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피켓을 만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갑자기 경찰이 집시법 적용 및 현장 상황에 의해 인도 쪽만 집회를 허용한다며 집회 장소를 좁히라고 명령했고, 월담을 하거나 경찰 폭행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의 트러블을 뒤로 하고 참여자들은 '가두지 말고 같이 살자', '우리의 이웃을 가두지 말라', '자유', '폐지' 등 각자 전하고 싶은 말을 꼭꼭 눌러 담아 피켓을 만들었다. 점심으로 비건 도시락을 먹은 뒤 여러 참여자의 발언이 시작됐다. 옆에 수어통역사분도 계셨는데, 이분께



'폐지'라는 뜻의 수어 단어를 배우기도 했다. 성미산학교 학생들, 밴드 소수잇의 호수, '별종반란' 운동가 희음 등이 발언했고 캄캄밴드, 빌리카터, 이하루, 밴드 소수잇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IW31은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만큼 저상버스 운행, 비건 도시락 제공, 수어 통역 등 사회적 소수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공연 후엔 행진을 했다. 외국인보호소 주위를 크게 한 바퀴 돌며 '내 이웃을 가두지 말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내 이웃을 가두지 말라'라는 구호는, 외국인보호소에 격리된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타인이 아닌 우리와 원래 함께 살아왔던 존재임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함께한 참가자들 다 같이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으며 버찾페는 마무리되었다.

버찾페를 마무리하며...

데어 버찾페처럼 현장과 가까운 곳은 처음이었다. 내가 방문한 곳들은 과거의 현장이거나 현장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곳이었으니까. 지금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입장이란 걸 상기하면서 이런 경험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유연 정말 너무너무 더워서 힘들었어요! 그런 만큼 더더욱 같이 간 문우 사람들뿐 아니라 그날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얘기하고 돕고 나누며 묘한 애정과 유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외국인보호소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나비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이렇게 외진 곳인지 처음 알았다. 버스를 타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사회와 격리하듯, 숨기듯 '보호소'라 쓰고 이런 시설을 지어 놓았다는 게 매우 황당하고 기묘했다. 버찾페처럼 찾아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에 많이 참여해 보고 싶다.

아자 어떤 시위를 가든 경찰이 서 있는 장면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왠지 이렇게까지 위협적이라고 느낀 건 처음이다. 버찾페 참여자들을 빙 둘러싼 경찰들이 무섭게 느껴졌다. 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그런 만큼 더욱 목소리를 크게 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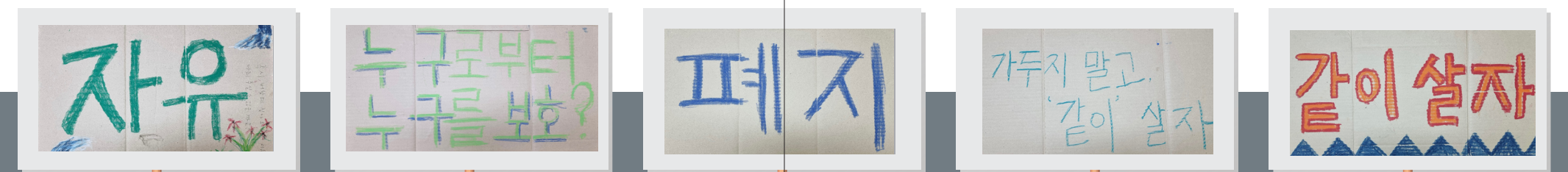
아부 버스를 타고 현장에 찾아가 크게 구호를 외치고 다양한 연대의 방식을 목격했던 하루 동안의 경험이 크게 남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에 대한 폭력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순 보호를 명목으로 이렇게나 외진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을 현장의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우리의 눈앞에서 '치워진 채'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에 무서움을 느꼈고,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연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키마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잘 몰랐는데 세미나와 버찾페에 참여하며 많이 배우고 많이 놀랐다. 경찰들이 엄청 많았고 현장이 정말 가깝게 느껴졌다. 날씨가 더웠지만 함께 모인 사람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고,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참고문헌

이은기, "외국인보호소 CCTV에 잡힌 '새우껍기', 무슨 일 있었나", 시사IN, 2021. 11.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91>.
박이랑,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노동자연대(448호), 2023.1.6., <https://wspaper.org/article/28800>.
박주연, "내 '이웃'을 가두거나 쫓아내지 말라". 일다, 2023.02.24., <https://www.ildaro.com/9570>.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후기

데어

바람이 시원하게 불 때, 누군가 비눗방울을 불었을 때, 길거리와 버스와 카페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 때마다 환호성이 터지고 깃발이 휘날렸다. 옆에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치고 스피커를 웅웅거려도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그 모든 걸 뒤로 넘겨버릴 수 있었다.



나비

퀴어들의 체력 육성 프로젝트인가? 왜 서울은 퀴퍼를 이런 땀벌에서 하는 것일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나마 노래가 나와서 좋았다. 하지만 퀴어퍼레이드만이 가지고 있는 신남이 있긴 하다. 처음 퀴어축제를 갔을 때는 비밀리에 다녀온다고 참 무서웠는데, 문우 깃발을 (잠깐) 흔들면서 내가 대학교에서 짱 좋은 사람들을 만나 같이 퀴어축제도 올 수 있다는 게 새삼 행복했고 고맙웠다. 진짜로 주변에 무지개따라들 있어서 좋고 너무너무 고맙다. 퀴어들이 너무 힘들지 말고~ 파이팅하자!!



60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함께 웃으며 걸을 수 있기를.

유연

퀴퍼 행진은 유사 연예인 체험이네요.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손을 흔들며 모르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깃발을 흔들다가 글썽 더위도 모르고 그만 완주해버렸지 뭐예요! (사실은 더위 많이 알긴 했어서, 꼭 운동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약한 나를 도와준 사랑하는 문우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깨안은 그날의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문우 67호 독자모임

정리정돈 유연, 60

지난 9월 6일, <문우>와 <연세>의 편집위원들은 서로의 최근 호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널찍하고 멋진 <연세> 편집실에서 만난 우리는 맛있는 샌드위치도 나눠 먹고 정답게 수다도 떨었지요. 그리고는 오랜 시간 서로의 글에 대한 다정하고 예리한 비평을 주고받았답니다. 이 정리정돈 글을 통해 그날의 대화들을 기록해보려고 해요. 문우 편집위원회에서는 나비, 단(丹), 데어, 아자, 어푸, 유연이 참여했고 연세편집위원회에서는 아자수, 한풀이 참여했습니다.



0. 자기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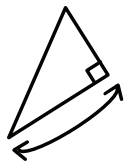
유연 안녕하세요. 저는 문우 소속이고, 필명으로 유연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로 유연이라고 한 건 아닌데 실제로 유연하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제 필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 안녕하세요. 저는 문우에서 이번 학기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번 필명은 나비인 사람입니다. 이번 학기에 편집장을 맡으면서 성격이 안 좋아져서 고민 중이에요. 문우의 귀여운 편집위원들을 독촉하고 갈구고 마감을 강요하며 지내도 괜찮은가 싶지만 이 자리에 계신 문우 편집위원들은 일요일까지 68호 마감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독자모임을 하게 된 67호에서는 필명이 노랑이었습니다.

단(丹) 안녕하세요. 저는 문우의 단이구요. 필명으로는 단 뒤에 한자로 붉은 단(丹)자를 덧붙여 쓰고 있어요. 저는 개인 사정으로 조금 바빠서 한 반년 정도 활동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독자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지 하고 있는 한풀이고요. 저는 135호가 첫 글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드롭하는 와중에 곳곳이 글을 써냈기 때문에 저는 반성할 게 없습니다. (웃음) 한풀은 그냥 기세라는 뜻인데요. 글에 원래 자신이 없는 편인데 기세 좋게 써보고 싶어서 한풀이라 했습니다.

데어 저는 연세지에 있다가 문우로 옮겨서 글을 쓰고 있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데어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어푸 안녕하세요. 저는 문우 신입 부원이고요. 필명으로는 어푸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글을 마감 중이라서 고민이 많고... 67호를 집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fresh한 독자로 왔습니다.

아자 안녕하세요. 저는 문우의 아자입니다. '아자아자 힘내자!' 할 때의 그 아자가 맞고요. 저는 이번 68호에 개인 글은 쓰지 못했지만 다른 분과 같이 정리정돈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야자수 저는 야자수라고 하고요.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 웃겨서 약간의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웃음) 133호, 134호 연세지에서 글을 썼고 135호에서는 드림을 했습니다. 이번 호를 다시 준비 중입니다.

1. 전반적으로 문우 67호를 어떻게 보셨는지

데이 제가 67호 참여를 안 했으니 외부인의 관점인데요. 연세지를 할 때 제목을 짓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목이랑 각 글이 되게 잘 이어져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전체 제목과 개별 글 하나하나의 연관성이 보인다는 점이 좋았고요. 정리정돈에서 문우의 교지 밖 활동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한풀 저는 일단 디자인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ㅇㅇ'이 뭔지 편집장 글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표지가 가로로 된 것도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림도 예쁘고, 편집장 서문에서 온라인이라는 컨셉과 맞는 도트 폰트를 가져가서 주제가 이어지게 하는 것도 신기했고. 사실 교지 한 권이 이렇게 나름대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편집장이 알아서 끼워 맞추기 해줘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글들은 다 이어져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

니다. 학기 중에 세미나를 해서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고, 기획을 시작할 때 애초에 틀을 잡고 시작하는 건지도 궁금했어요.

아자 보통 메인기획 주제랑 세미나 주제랑 이어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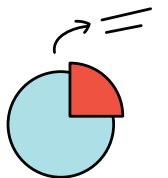
유연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 토론쪽지를 만들거든요. 토론쪽지 다시 안 쓰는 게 아까우니까, 이 호를 할 때는 글 쓸 주제 만든다고 각각 토론쪽지 가져가기를 했었어요.

한풀 그리고 사실 저는 좀 부러웠던 게, 글의 분량이 길지 않아서 읽기 좋았어요. 너무 긴 글은 읽다가 오히려 지치는 경우도 있으니깐. 그리고 정리정돈이라는 이 말도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유연 귀여움을 인정받다니 기뻐.

야자수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대부분의 글이 콘텐츠 하나를 가져와서 이리도 살펴보고 저리도 살펴보고, 그 콘텐츠를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 기반해 재미난 방식으로 글을 쓴 것 같아서 문학비평지나 문화비평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호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유형물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글들이 되게 공통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데이 그리고 저는 권두시 넣는 게 너무 좋아요.



2. 구성과 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어 메인기획과 문우의 눈처럼 소챗터가 나뉘져 있는 게 좋았어요.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구성이라고 생각했구요. 또 검은 남과 포슬 남의 글이 사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연의 글이 중간에 나온 게 분위기를 풀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한플 목차는 어떻게 짜세요, 보통?

나씨 틀이 있어요. 먼저 권두시와 편집장 서문이 들어가고, 메인기획을 넣고, 그다음에 메인기획으로 포섭되지 않는 글들이 문우의 눈 카테고리 들어가게 되고요. 정리정돈은 문우가 참여했던 집회 등의 활동에 관해 쓸 여력이 되어 누군가 정리를 했다면 그때 실리게 됩니다. 독자모임도 저희가 했던 활동이니 정리정돈 란에 같이 실리고요. 그다음에 편집후기로 끝이 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틀이에요.

한플 전체적인 틀이 정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자수 저희는 목차를 주르르 적는데, 여기는 나눠서 적는 방식이 글의 성격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메인기획은 세미나 주제를 온라인 담론장에 대한 이야기로 정했던 건가요?

야자 운영위원회 회의 때 다음 학기 세미나 주제를 정해요.

한플 저희는 세미나가 없으니까 사실 부러웠거든요. 책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더어 문우는 단행본 같은 느낌, 연세지는 잡지고.

야자수 그리고 ‘아, 한 단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전쟁에 대한 전쟁’에서 언급한 베트남 전쟁 피해자 증언 좌담회를 또 노랑 글에서도 언급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문우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보여요. 아, 단체구나!

3. 표지, 내지 등 디자인에 대해

더어 저는 앞표지에 가로 배경이 들어간 게 너무 신기해서 덮석 집어 들었거든요. 또 문우에서 글 배경을 다이나믹하게 하는 게 좋았어요. 가령 배경을 까맣게 깔고 글씨를 하얗게 하는 방식이요. 그런 식으로 가독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져가는 게 좋은 선택일 때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자 가독성 때문에 지양하고 있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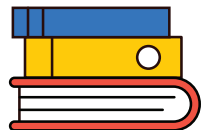
나씨 잉크가 낭비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더어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의 타이포그래피와 그림이 너무나 글과 딱 맞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한플 그리고 표지가 글 시작 전 한 페이지로 구성되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글마다 표지 디자인을 열심히 생각하겠다 싶어요.

더어 편집후기 디자인 너무 귀여웠어요. 사진과 배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리고 손글씨로 쓰니 편집위원 각자의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고요.

야자 저는 개인적으로 손글씨 후기에서 배경을 지우고 딱 글씨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배경까지 통으로 들어가서 아쉬웠습니다.



야자수 저는 문단 배치에 대한 다양성이 좋았어요. 특히 이 글 있잖아요, ‘이어지고 싶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책을 읽을 때는 이만큼씩이나 여백이 있진 않는데, 옛날 글을 보면 문단이 신기할 정도로 넓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교지의 성격을 가진 느낌이라 좋았어요. 그리고 한풀의 말대로 포슬 글의 연인 그림도 그렇고 유연 글의 여주 그림도 그렇고,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확실히 들어가니까 그게 잘 느껴져서 좋았어요.

4. 개별 글 코멘트

[메인기획 - 온라인 담론장]

파도를 마주하며 _검은

한풀 이 글 재미있게 읽었어요.

야자수 일단 필자가 글쓰기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힌 게 웃겼어요. 연세 135호에 실린 데어의 ‘글 쓰기 싫다’도 그런 점에서 웃겼는데. 일단 완성된 글이 나오면 필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글은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어디서 넘어졌는지가 보이는 게, 온전히 그러한 넘어짐을 담은 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설명만 전달하는 글일까 봐 오히려 안 읽었을 것 같아요.

한풀 저는 TERF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긴 하지만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 TERF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TERF 입장에 가까운 접근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다가도, 이 글을 이렇게 솔직하게 써낸 검은의 입장에서 그건 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TERF 입장의 존재를 깨닫는 과정과 파도에 비유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글을 끝냈다는 점이 흥미로웠

어요. 페미니즘 운동을 하다 보면 강경한 여성 우월주의 때문에 절망적인 지점이 굉장히 많은 말이지요. 그 때문에 페미니즘이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데, 공감되는 것도 많았고 좋았어요.

어푸 그 비유가 좋았어요. 말뚝으로 바다를 가를 수 없다.

야자수 저도 노트에 ‘검은’이라 적어놓고 ‘비유 곳’ 하고 적어놨네요. 어떻게 파도라는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확실히 와닿는 비유여서 큰 그림이 그려졌어요.

데어 그리고 물론 이것은 필자의 선택이지만, 이 글에서 검은이 계속 “~합니다”, “~해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으려는 말투 같았고, 그런 문체도 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 쓴 점이 좋았어요.

한풀 저도 존댓말을 쓰는 점이 굉장히 단단하고 강해 보여서 좋았어요.

야자수 그리고 어쨌든 필자의 생각의 변화를 담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이해해 볼 수 있게 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혹은, 우리와 너 사이에 _포슬

나비 스탠드업 코미디를 가져와서 타자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글이었어요.

데어 이 글을 읽고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냐면, 연세지에 ‘근육의 문제’라는 장애인 이 동권 시위, 탈시설에 관한 기고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대학원생이셨는

데 포슬의 글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이 쓴 글 같아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학술적인 단어들도 어렵기도 했는데, 이런 단어들 이 압축적인 글에서 필요한 단어이고, 그래서 이런 글들이 교지에 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풀 이 글이 대화 중 상대와 소통이 되지 않고 말이 뜨는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라는 어푸의 설명을 들었을 때 되게 설명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포슬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수자성을 발화할 때의 고통과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의 고통을 글로 유지하지 않게 잘 녹여낸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듣고 진짜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아 나는 사람들이랑 어색하게 정적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 하고 끝날 글이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인용하고 풀어내다니, 포슬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못 쓰거든요. 여러 논문을 인용해 촘촘한 각주가 달린 이런 글을 못 쓰는데 이렇게 포슬이 써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글의 디자인이 우리가 제일 익숙한 흰 배경에 검은 글씨에,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도 포슬이 하고 싶은 건 비판적이거나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나비 마지막 문단이 너무 다정해요. “결국 애정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타자의 언어를 통역하는 끊임없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유연 포슬은 상냥한 사람이니까.

데이 이것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야자수 이런 글을 쓰려면 평소엔 사유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보는 사람이어야 한

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풀이 이런 글을 쓸 수 없다고 한 말을 이해하겠어요. 원래 제 성향 자체가 철학을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엠비티아이에서 N도 아니라 어려운 글을 잘 못 읽는 편이에요. 쉬운 것만 찾아 읽으려 하고. 저도 그런 단점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독자모임을 해야 하니까 끝까지 읽으려 했어요. 중간중간 문장은 이해가 가는데 문맥은 이해가 안 가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독해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이 글을 읽고 나서 왜 내가 이 글을 다 읽어내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의 심도를 상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해나 개즈비’를 검색해 봤는데, 이 작품을 보는 게 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집 가는 길에 보려고요.

한풀 저는 제가 포슬을 알고, 제가 해석하는 포슬의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절대 남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출발한 거라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능력 여주가 살아남는 법 _유연

나비 이 글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웹소설 이야기고, 웹소설에 있는 클리셰를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의 심리, 사회적인 경향성이 어떻게 웹소설에 녹아들어 있는지. 독자들이 왜 이런 유행하는 특정한 클리셰에서 재미를 느끼는지를 분석해 본 글입니다.

데이 저는 여기 나오는 모든 소설을 최소 20화까지 읽어본 사람으로서 너무 즐거운 글이었고, 유연이 이 웹소설들을 읽고 분류하고 분석하느라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디자인이나 소재목에 신경 쓴 점과, 페이지 마지막에 제목과 회차, 저자 이름이 들어간 부분이 좋았어요.

한풀 저는 웹소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근데 웬만큼 웹소설을 많이 보고, 좋아하지 않으면 클리셰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읽기에도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클리셰들을 설명하고 싶었는지 유연만의 관점이 딱 있어서 좋았어요. ‘웹소설이 이런 재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인용된 작품들도 한두 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웹소설 독자로서의 이십 년 인생이 들어간 글일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다른 편집위원 중에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글이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유연만이 쓸 수 있는 글 같아서 정말 멋있다고 느꼈어요.

야자수 만약 백 년 뒤에 2023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궁금하면 사회과학책을 고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당대 사람들이 읽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지 그 제목이 담긴 카탈로그를 보는 것으로 그 시대의 욕망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하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저는 읽는 문학이 없어서 이런 글을 약간씩 흥미했어요. 이런 건 대상에 대한 오랜 시간의 애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 통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웹소설은 책 한 권 안 읽을 것 같은 아저씨도 읽는 거예요. 대중적인 웹소설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고구마와 사이다 이야기를 풀어낸 관점이 인상 깊었던 게, 요즘 사람들이 사이다를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커피 주문이 약간 밀린 것 같은 사소한 일에 크게 화를 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갚아 주겠다는 정서나, 참교육이라는 단어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소재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싶어서 반가웠던 것 같아요.

한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능력주의라는 누구나 읽기 쉽고 커다란 소재를 전체적으로 집어낼 수 있었다는 게 멋있습니다.

유연 아까 야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절 기쁘게 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 년 뒤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창작물에 투영하고 있었는지 그 경향을 읽어내려면 웹소설 같은 글을 분석하는 게 가장 주효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들은 수업에서 교수님이 옛날에는 사람들의 민심을 알기 위해 관리들이 이야기와 노래를 수집해서 이 지역의 관리가 통치를 잘 하고 있는지, 사람들 살기가 좋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는 노래나 이야기의 그런 기능을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문화가 수행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 글이 교지에 실릴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자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문우의 눈]

전쟁에 대한 전쟁: 베트남 전쟁과 마주하기 _아자, 야부, 루

나비 이 글은 문우에서 제 제안으로 언협 보도상 후보까지 올렸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중첩된 피해자성과 가해자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베트남 전쟁을 기억할 것이며 전쟁이라는 비극에 대해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뤄내고 상상할 수 있는지를 다루요.

한풀 이 글도 자료조사나 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화에 대한 상상을 멈추지 않기’가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어요. 사실 제가 체감하는 국가폭력은 감히 희망차지 않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곳의 전쟁도, 기록된 전쟁도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에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6·25전쟁에 대해 기억하는 첫 배움은,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지만 약속을 하여 멈췄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던 전쟁은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가벼웠어요. 지금의 제가 느끼는 전쟁은 결코 가볍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표기된 연도에 끝나지 않는 것인데도 누군가는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 부분이 나오는 게 되게 좋았어요. 평화를 스펙트럼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공감이 많이 됐고요.

데어 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만남과 피해자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사람의 만남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고엽제 피해자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국가가 나를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있었던 가해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교차되는 지점을 짚어 주신 게 좋았어요. 또 사람을 텍스트로 만나는 것과, 면대면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좌담회 참석해 주신 걸 언급해 주신 것도 좋았어요. 좌담회에서 직접 그분의 말을 듣고 인용해서 실으신 점이 이 글에서 무거운 부분이어서 인상 깊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개인일 뿐인 나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다고 느껴져서 끝낼 말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고 힘이 없고, 심지어 안전한 곳에서 희망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야자수 이 글이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의 중첩,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줘서 좋았어요. 조금 반성을 하자면, 사실 저는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조차 일상에서 많이 잊고 살거든요. 그만큼 전쟁에 대해 무감각하고요. 물론 중요한 의제지만 국가폭력사건은 꽤나 멀게도 느껴져서 어떻게 감각해야 할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궁금했던 지점이 있다면,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어 말대로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 피해 사실을 직접 전해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전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연 저는 베트남 전쟁 얘기한 거 좋았어요. 정말 필요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은폐되기도 했고, 그 결과 잊히거나 다들 모르는 일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와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대비해서 보여준 부분이

좋았어요.

데어 그리고 국가폭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를 보면 충분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베트남 전쟁을 우리가 직시함으로써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어지고 싶으니까 _노랑

유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인데요. 이 글은 소위 제로섬 게임으로 지칭되곤 하는, 자원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원이 한정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시작되었어요. 50페이지의 픽션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현실에 없는 장면을 상상하고 기록해 그것이 실제 현실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사라잔마이>와 <돌아가는 펑크드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런 제로섬 상황이 어떻게 타개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를 살펴본 글입니다. 정말 좋아요.

한풀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일단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던 게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면 남성의 인권이 낮아진다는 페미니즘에 대한 우회로 이어지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픽션을 인용했을 때의 장점도 뚜렷하고 단점도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라 그래도 이것은 픽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희망을 엿보는 게, 오히려 픽션을 인용해서 유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인 언어로 설득하려고 했으면 계속 현실로 내쳐졌을 것 같은데, 이런 서사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인용했을 때의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은 너무 충격적이고 거대한데, 픽션은 되게 좁은 사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입장에서 애니메이션을 인용한 점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문우라는 공동체 자체가 멋있다고 생각한 게

떠든 사람
나비, 유연, 한풀

각각의 글에서 드러나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어지고 싶니까’라는 제목도 정말 강한 욕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학기 동안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은 어떤 힘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나비 저는 글을 쓸 때, 너무 제 성격대로 안 쓰려고 해요. 원래 성격대로 쓰면 밀도 끝도 없이 비관적인 사람이라.

야자수 저도 읽으면서 한풀처럼 픽션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천진난만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마음에 품고 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독자의 눈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열심히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자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보니 반갑습니다. 좋은 이야기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아 이 워딩 진짜 잘 썼다’ 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의 욕망과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전해 들음”, 이 부분이 되게 명확해서 좋았어요. 욕망을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전해 듣고, 직접 듣지는 않더라도 전해서라도 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욕망이라 하면 뭔가 그렇게 선한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선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살고 싶어서 욕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나도 내 욕망이 뭔지 잘 생각해 보고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욕망도 듣고요.

더어 저는 이 글을 보고 <사라잔마이>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 ‘이어지고 싶니까’라는 글을 다시 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비관적인 사람이라, 이런 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비관적이기 시작하면, 밀도 끝도 없어서 나를 끌어올려 줄 텍스트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글을 보면서 우리는 이어져 살아야 한다

는 것을 스스로 환기시켜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문우의 독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한풀 사실 이 글은 새로운 호의 첫 글이나 마지막 글이 되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희망차고 긍정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삭제되는 여러 담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글과 함께 세부적인 담론들이 함께 실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 소수자 의제 안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뒤에 나왔으면 이 글이 더 돋보였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비 그게 제가 하려다가 못했던 거예요. 아쉽네요.

유연 나비는 미디어 텍스트 비평에 재능이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랑 설정을 글 중간중간 설명하는 게 능숙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요.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여기서 이 설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매끄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나비가 앞으로도 이러한 식의 어떤 미디어 텍스트를 경유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글을 쓴다면 좋을 것 같고 기대가 돼요.

한풀 제가 실제로 두 애니메이션을 본 친구한테 이 글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되게 좋았대요. 이 글에 애니메이션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있다고 얘기해줬어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글에 눈길이 가나 봐요.

더어 포슬과 유연의 글에서도 느낀 거지만 적절히 인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번 보고서를 쓸 때마다, 이 조각보를 기울 때마다 느끼거든요. 장문의 캡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나비의 글도 인용이 적절해서 좋았어요.

[정리정돈]

자보 수난 시대 - SPC 불매 운동 자보 작성 _김은

야자수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첫째로 반성했고 둘째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글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자보를 때는 사람은 ‘에 이거 또 여기 붙여놔어?’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중요한 행동이었지 않나 싶어요.

나비 대자보가 계속 떼어진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을 글로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저희 동방에 자보가 옮겨 붙어 있습니다.

한풀 저도 공대위를 했을 때 비슷한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백양누리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유리에 자보를 붙였는데, 밥 먹고 오니 없어져 있기도 하고 결국 반나절 만에 떼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우의 꾸준함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피드백을 주고받고, 같은 책 안에 같이 글을 실는다는 것도 공동체만의 약속이 필요한 일인데, 글 쓰는 것 이외에 이런 활동을 꾸준히 끈기 있게 해낼 수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이지만 잘 쓴 대자보는 주로 떼어지더라고요. (웃음) 잘 썼을수록 빨리 떨어진다, 저만의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줄 수 있는 건 단과대 교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야자수도 반성했고 좋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더어 제가 문우에 온 건, 세미나와 실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어쩌면 나한테는 당장 글 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래서 문우가 참여한 활동을 정리정돈해서 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학내 활동이라는 건 일시적이고, 또 학내 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생이 학기마다 바뀌기 때문에 너무 잘 증발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든 남겨서 아카이빙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서 이 글이 좋았어요. 구겨진 종이 배경도 좋고요!

한풀 왜 자보를 썼는지, 자보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구성도 좋았어요. 정리를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5. <연세>와 <문우>에 기대하는 글과 하고 싶은 말

나비 <연세>에 언제나 따스하면서도 날카로운 말들이 적히길 바라요! 부드러운 말로 강한 힘을 담는 게 <연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135호를 보면서도 계속 생각한 건데, 정말 <연세>의 발간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몰아치는 편집회의 속에서도, <연세>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계속해서 담아내며 존재해 나갑시다. 교지 단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응원하고 있어요!

한풀 전체적으로 <문우>의 67호는 필진들의 따뜻함과 힘, 문우편집위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안전함과 자신감을 잘 드러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문우가 긴 호흡을 자유롭게 가져가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따뜻하게 대화하면서 글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지가 글을 쓰는 것 이외에 또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앞장서서 고민해 주시는 것도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독자모임에서 글을 보면서, 또 문우편집위원들을 만나면서 문우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거예요. 세미나 초대해 주시면 놀러 갈게요 :)

더어 <연세>도 <문우>도 잘 살아남아서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학내 사안에 대해 <연세>가 조금 더 쓸 수 있기를 기대해요... 편집실에 있는 동안 너무 즐거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도우러 갈게요.

유연 멋진 글을 쓰는 사람은 항상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글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은 엄청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비록 우리가 글쓰기 싫다고 영영 울어도 결국 우리는 반듯한 교지 한 권을 펴낸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도 인력은



부족하겠고 학생 사회는 망했겠고 우리는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고 인 사하고 가끔은 식사도 함께하고 싶어요. 왜냐면 연결에는 힘이 있고 우리는 이어 지고 싶으니까~!

야자수 합동기획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쓸 수 있는 글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6. 우리에게 교지란?

나비 애증의 존재 ㅎㅎ

한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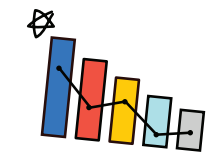
나비 그렇지만 이번 독자모임을 진행하면서 교지라는 게 참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 이 들어서 교지를 쓸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교지란, 소극적인 저도 단체에 속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고맙고 소중한 매체 같아요. 또 저에게 교지란, 공동체의 규칙을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다양해서 사랑스러 운 사람들이 존재하는 단체가 하나의 출판물을 내기 위해 애써서 만들어 내는 결 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더 소중한데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낸 거야!' 같은, 만화영 화 느낌의 대사입니다 ㅎㅎ

야자수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활동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교지 안 했으면, 문우도 안 읽었을 거고 당연히 연세지도 안 읽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소중히 써서 붙인 대자보가 무참히 떼어졌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 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저희 학교를 더... 열심히 괴롭혀 (웃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글로 남기고.



데어 글 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 마감을 설정해주는 교지에게 고마울 따름... 교지라는 공동체는, 제가 학교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는 곳이에요. 공동체로서도 장소로서도. 그래서 이 느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연 교지 쓰기에 대한 감상은 연세 135호에 실린 데어의 '글 쓰기 싫다'로 대신하겠 습니다. 대신 교지 동아리에 대해 말해 볼까요? 문우는 폭풍 같은 대학 생활에서 제가 마음 둘 곳인 것 같네요. 우리 동방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 이 생기면 짹짹 놀라며 후다닥 달려올 사람들이예요. 그건 문편들과의 친밀한 관 계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들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이 더 커요. 더 좋은 글을 쓰려 애쓰고,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들의 친구가 아니었더라도 내가 당한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내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학교 이곳저곳에 있다는 걸 아니 정말 기뻐 요. 그 공동체의 치열한 생각들을 앗은 자리에서 편히 넘겨볼 수 있게 교지까지 내주니 정말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교지 읽기로 여러분의 존재를 되 새기며 제 학교생활의 안정감과 기쁨을 획득할 테니,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열심히 교지를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



편집후기

튜브

문우에 들어와서 쓰는 첫 글이 드디어 완성되었네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정선 차려보니 글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글을 피드백해 줄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언을 받아먹기만 해서 양심이 조금 찢리지만 그래도 도움 덕에 만족스러운 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일정도 약속도 없어서 무리하게 보낼 뻔했는데 문우 활동이 있어서 그나마 성실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글 쓰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과는 별개로 방학 동안 거의 매주 만나고 엠티도 가면서 행복한 기억들이 더 많이 남게 된 것 같아요. 다들 집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결과들이 기대가 되네요!

나비

편집장으로 보낸 첫 학기였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하나의 책을 만들어 낸 게 기쁩니다. 그 책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대학생의 목소리를 내는 교지라서 더 기쁩니다.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이번 학기에는 소중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꽤나 긴 시간을 거치고, 꽤나 다양한 생각을 거쳐 저에게 문우의 의미가 점점 복잡해지는 게 신기합니다. 앞으로는 문우가 저에게, 나아가서 연세대학교와 세상에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합니다. 덜컥 편집장을 맡게 되고 부족한 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여럿이었는데 다들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와 연결의 힘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덕에 저도, 문우도 또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버

문우의 '수습편집위원 복복복 해주기'에 합입어 간신히 글을 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같이 토론하고 글을 써온 편집위원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문우편집위원회를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을 갖다가 이번 봄에 조금은 중동적으로 지원했었는데, 많이 배우고 많이 이야기하는 즐거운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우의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곧 만날 문우의 독자 여러분도 기대가 됩니다. 편집후기를 쓰는 이제서야 겨우 바람이 시원하네요. 다들 건강하게 가을을 시작하시길.

토리

호기롭게 글을 써보고자 했지만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담은 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문우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네요! 여럿이 함께 완성하게 된 글이지만 앞으로 살면서 쓸 많은 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니 이번 글이, 그리고 문우가 더 의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의 글도 피드백해줄 수 있을 만큼 더더욱 자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마

편집후기를 쓰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에요. 이번 방학 때 동아리 활동이 많이 칠여하지 못해 아쉬워요. 그래도 정리정돈 글을 썼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글을 써온 아자와 문우분들 덕분에 끝까지 쓸 수 있었어요. 다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반 우스갯소리를 자주 했는데, 사실 이런 이상한 저라도 받아주는 곳을 원했어요. 문우에 속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이번 학기의 대부분을 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제 모습에 괴로워하며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잘 이겨냈네요. 집필 과정을 포함하여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여자가 아프고 사랑이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저세상을 싫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싫은 것도 모순적으로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이겠죠. 비단간 존재에 대한 애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곳에는 담지 못했지만 운우는 이번 학기에 반반근연대활동에도 참여하고 교내의 사회과학 자치도서관과 함께 영화 상영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호를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운우에 관심이 생겼다면 운우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교지에서 함께 글을 쓴 카미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며 이만 종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연

이번 여름은 유독 고도였네요. 그런데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운우 사람들의 덕이 커요. 비록 이번 호에 쓰려던 글은 제 맘도 모르고 가득 불어나 버려 신지 못했지만, 권두시로나마 서지사항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기뻛요. 여름으로 바쁘고 어지러웠던 학기 그래도 여러분이 있어 신운이라는 공간에 어두운 사람으로서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랑 짝장도 듣고 카페도 다녀온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첫 글로부터 신, 여전히 서툰고 가끔은 못한 저지만 여러분과 살갑게 손잡으면 그뎨 다 괜찮은 것만 같아요. 이젠 그래요.

60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한 발짝 물러서 지켜봐 주셔서 편집위원분들께 항상 죄송하고 감사해요. 지난 호 글은 기획안을 쓰다, 이번 호는 기획안을 마무리하며 제 이야기를 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여전히 글을 쓰기가 두렵지만 조금씩 다가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제 글을 운우에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저를 믿어보려 합니다. 이번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루

마침표 찍기가 왜 이미 여겨지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명확하게 쓸 수 있는지 이제껏 쓰고 어떤 리포트에도 뒤지지 않게 고민이 많은 글이었습니다. 자꾸만 늦어지는 마음을 기다려 주고 응원해 준 부원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여인 시절부터 희미하게 가지고 있던 자난한 물음에 나름대로의 답을 내린 여름이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고 보니 이미 학기는 시작되었고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다소 의아하지만 함께라서 끝까지 쓸 수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느껴요. 아마 겨울에도 이 고단한 작업을 하고 있겠죠! 두렵고 기대가 됩니다.

야부

이번에도 어떻게든 끝낸 것에 의의를 두는 글을 쓴 것 같아 부끄럽지만, 옆에서 무조건적인 북돋을 해준 운우 편집위원들이 아니었다면 이마저 해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는 방학 동안만 운우 활동에 참여해서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는 학기 중에도 운우 편집위원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설레요. 물론 너무 오랜만이야 걱정도 되지만, 운우 편집위원들께 한껏 기대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운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계셨던 기본 위원들처럼 무엇이든 책적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 절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말하고 묻고 배울게요. 다들 수고하셔요!

